

Seoul Business Letter



연결이 지배하는 네트워크 시대의 생존 전략

네트워크 시대를 향한 스마트한 시선을 취재하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2015년이면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25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대표하는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13억 명을 넘어섰고,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네트워크에서 벗어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무심코 그것을 이용하기도, 또 그것에 이용되기도 하면서 삶이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네트워크 시대를 향한 각계(학계, 산업계, 예술계 등)의 스마트한 시선을 취재해보았다.'

관련 기사 2,3면에 계속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xecutive MBA(정규 석사학위 과정)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 모집인원 120명
- 과정특징 2년제 주말 집중과정 (정규석사 학위과정)
- 강의시간 금요일 15:00~19:00 / 토요일 09:00~18:00

원서접수	2014. 10. 01 (수)~11. 03 (월) 17:00 까지
면접 및 구술고사	2014. 12. 04 (목)
합격자 발표	2014. 12. 11 (목)

-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 국내외 정규 학사학위 또는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
 - 국내외 기관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단, 현직임원과 박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 서울대학교와 EMBA 위탁교육 협약서를 체결한 기업 또는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 (재직 기관으로부터 학비 50% 이상 지원 필수)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공인영어성적 제출 또는 TEPS 특별시험 응시 가능한 자

※ 영어면제 조건 및 자세한 모집요강은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 참조(<http://gsb.snu.ac.kr>)

입학문의 -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 행정실 ☎(02)880-1332/2521

INDEX

COVER STORY 1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연결이 지배하는 네트워크 시대의 생존전략 - 노상규 / 오정석 교수 인터뷰서울대 경영대 모바일 주소록 앱 오픈트위터 김민영 이사 인터뷰타리온 운영자 김승권 학생 인터뷰서울대 미술관 MOA전시 취재 FOCUS 4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서울대, 기업가센터 주관대학으로 선정2014년도 QS세계 대학 평가 재무/회계 분야 40위 차지	CULTURE & PEOPLE 5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글로벌봉사단 GCS 중국 시안 방문2014학년도 하계방학 기업탐방 실시제4기 드림멘토링 START제3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청소년 경영캠프경영대학 HOT동아리 - 상송회2014학년도 1학기 Dean's List 총 23명 선정MBA 소식<ul style="list-style-type: none">Doing Business in AsiaDoing Business in KoreaEMBA 소식<ul style="list-style-type: none">EMBA Family Day 개최EMBA 하계 GRP 진행동문이 된다 - 이색 진로 선택 사례 : 김정훈 감독 / 구성준 PD신입교수 인터뷰 - 박선현 조교수경영대학 교수진 릴레이 도서추천	NEWS BRIEF 11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2014학년도 회계학 학습 장학금 수여식2014학년도 1학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후원장학금 전달식2013학년도 2학기 성적 우등 장학생 선발자유전공학부 학생대상 경영대학 교수와의 간담회 개최경영대학 <나눔> 프로젝트 3차 지원 동아리 선발벤처경영학 연합전공 2학기 진입 학생 선발경영대학 명예교수 초청 오찬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경영대학 소속 외국인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AMP 소식교수 소식	ALUMNI & DONATION NEWS 13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2014년 상반기 Wall of Honor 명패교체식 및 S-Honors Club신규 선정(주)삼익이 경영대학에 학술기금 5억원 출연84 장학기금 장학생 선발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총동창회 소식AMP 총동창회 소식EMBA 동문 소식 SBL COLUMN OUR BENEFACTORS
--	--	---	--

네트워크 시대의 생존전략

경영대 교수 인터뷰



네트워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파하여 기회를 이용하고 위험에 대비하라

'네트워크 시대'란 무엇이며, 네트워크가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기업은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노상규 교수(경영정보 전공)와 오정석 교수(생산관리 전공)를 찾아갔다.

노상규 교수(RHO, SANGKYU)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경영정보)

[Q] 교수님이 생각하는 '네트워크 시대'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연결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네트워크 시대'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 사람과 사물 간 등 모든 것이 연결된 시대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이 하나의 매체로서 콘텐츠나 미디어 산업에만 국한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네트워크 시대'란 연결로 인해 산업, 경제, 사회 전반이 바뀌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 서비스가 호텔/관광산업뿐 아니라 우리가 여행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모든 것이 연결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Q] 지난 학기 개설 강좌인 **경계가 허물어지는 세상,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전하라** (제품 기획론) 수업에서 제품 기획 단계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기획 단계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것은 우선 제품의 콘셉트와 가치를 소셜네트워크 등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네트워크 세상에서는 많은 시간, 돈, 열정이 투입된 대부분의 제품들이 시장의 반응을 전혀 이끌어 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제품의 콘셉트와 가치를 소셜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확인해 가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제품 자체를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어 기획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제품 자체에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구조 및 기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품이 네트워크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 교수님의 블로그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비트코인은 무엇이며, 비트코인의 전망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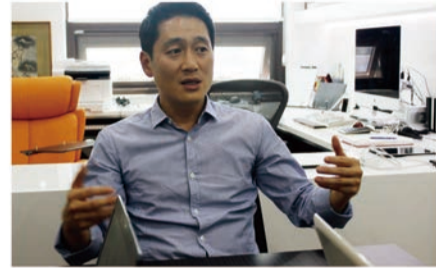
비트코인을 간단히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가상 화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상화폐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 지불(Double Spending)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비트코인은 이중 지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화폐들과 차별화됩니다. 비트코인을 활용한 모든 거래는 공개 장부에 기록되고, 그 장부를 비트코인을 '마이닝'하는 사람들이 지키게 됩니다. 장부를 지킨 대가로 비트코인이 발행되며 유통이 시작됩니다. 비트코인의 발행부터 사용에 이르는 모든 거래가 연결되어 있고 이 내용이 공개 장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은 누구의 손을 거쳐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를 전망해보자면, 당분간은 잠잠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방식으로 화폐계의 혁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Q] 네트워크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네트워크 시대가 되다 보니 모든 분야에서 경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직장을 구할 때나 창업을 할 때 도전정신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경영대에서도 학생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영대학홍보대사B.G.Ns 10기조현지(14)



오정석 교수(OH, JUNGSEOK)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생산관리)

[Q] '네트워크'라는 개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싶습니다.

처음 네트워크 얘기가 나올 때는 생산성과 연결되어 논의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소문이 빨리지고 많은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사회가 진화하면서 최근 등장한 것이 '스마트'라는 개념입니다. 네트워크로 인해 서로가 연결이 되고, 그 위에 지능이 가미된 형태를 '스마트'라고 하는 만큼, '네트워크'와 '스마트'라는 개념은 상호 보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네트워크의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개인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적응력은 성숙하고 있으나 정보 보호, 사생활 보호 등에 대처하는 제도는 정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네트워크 사회는 효율성과 그 부작용 간에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지나에 따라 바람직한 정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공유경제와 관련한 모인 터뷰에서 협력적 소비가 늘

어가는 추세라고 언급하셨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추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여러 사람들의 지식과 행위가 결합될 수 있는데, 이런 집단지성을 통해 소비자들은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업하면서 전보다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단지성의 이슈는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소비자들끼리 협력을 해서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현상인 Peer Production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Peer Production의 대표적인 예는 Youtube인데, 개개인들이 동영상상을 조금씩 올리던 것이 이제는 가장 큰 미디어의 공급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수요 측면에서는 협력적 소비, 공급 측면에서는 Peer Production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기업들이 고차원적인 마케팅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똑똑한 소비에 대처해야 하고, 소비자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기업들은 높아진 소비자의 수준에 맞춰 소비자들의 니즈(needs)를 정확히 파악하고 질적인 혁신을 계속해야만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건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사람의 제어 없이도 자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기술)에 관한 칼럼을 쓰셨는데, IOT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는 IOT 사물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대, 모바일 시대만큼 큰 파급력을 가지고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가치가 창출될 것인냐'와 '언제 그 시기가 도래할 것인냐'입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현재 많은 기업들이 아직 비즈니스모델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산업, 유통업계, IT 업계 등에서 IOT를 주목하고 있는데 기존 네트워크 시대의 강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사물인터넷 시대에 성공을 이뤄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신생기업이 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처음엔 그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거품이 가라앉게 되고 욕망이 가려지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현재 사물인터넷은 사이클의 정점에 놓여있는 상황이며 기업의 입장에서 현재의 투자는 high-risk high-return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사물인터넷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명확해져서 기술의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Q] 네트워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균형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풍부한 콘텐츠가 제공되지만 중독성, 보안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막을만한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이를 인지하고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비용-편익과 위험 문제를 고려해서 선을 긋고 SNS 등의 활용을 조절할 수 있는 자제력과 통찰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경영대학홍보대사B.G.Ns 9기유현상(09)

경영대도
네트워크로 **통(通)**
하다

서울대 경영대 모바일 주소록 앱 오픈

학생수첩 기능을 넘어 경영대 SNS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을 위한 모바일 주소록 앱이 2014년 10월 초,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배포된다. 주소록 앱은 매년 배포되고 있는 학생수첩을 대체할 예정이며 SNU Biz Members로 검색하여 다운 받을 수 있다. 작년 11월, 경영전문대학원의 MBA프로그램(GMBA, SMBA, EMBA)을 대상으로 1차 오픈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이번에 경영대 학부 및 대학원, 그리고 일부 경영자 과정(AMP/CFO)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5년 초에는 경영대 전체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소록 앱은 단기적으로는 경영대/경영전문대학원의 학생, 졸업생, 교직원들간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울대 경영대/경영전문대학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현재 버전의 주소록 앱은 두 가지 측면을 중점으로 개발되었다.

첫째는, 주소록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높이는 것이다.

주소록 앱에는 교수진, 교직원, 과정/기수별 학생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다양한 키워드나 태그를 이용하여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한 사람에게 바로 전화걸기, 문자/이메일 보내기, 내 폰에 주소 저장하기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편리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버전에서는 태그(개인, 공개, 강의)를 추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분류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강의 태그를 이용하여서는 같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조회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태그(예를 들어, '오리엔테이션 룸메이트' 등)를 붙이고 추후에 태그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앞으로는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등과 같은 기존의 SNS 및 메신저 서비스 등과도 연동시킴으로써 서비스의 유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둘째는,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주소록 앱은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보관하는 서비스인 만큼 개

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경영대 인트라넷(<http://biz.snu.ac.kr/intranet>)에 저장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인증 절차를 거치고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휴대폰을 분실하는 경우 인트라넷에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분실 신고 시 앱이 실행되지 않으며, 다운받은 정보는 자동으로 지워지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과정/기수/생년/직장(같은 기수의 경우에는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도 포함)이며 주소록 앱에서 정보 공개 정도를 설정할 수 있다.

앞으로 본 서비스를 경영대 전체로 확대하여 경영대 학생 및 졸업생, 교수, 교직원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모바일 주소록 앱이 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서울대 경영대 SNS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경영대학 전산실 (02-880-8936)

네트워크 시대의 생존전략

경영대 동문 인터뷰

공개된 대화의 실시간 확산 -트위터를 말하다

트위터 김민영 이사 (경영전문대학원 Global MBA 3기/졸업)



트위터- 새로운 플랫폼과의 만남

드라마 기획 PD부터 콘텐츠 유통, 신규 채널 론칭에 이르기까지 김민영 이사가 지난 수년간 미디어업계 전반에서 쌓아온 커리어는 화려하다. 현재에서 실력과 유능함을 인정받던 그녀가 돌연 이직의 길을선택한 것은 최근의 일. 변화와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미디어 산업 일선에서 전통적 미디어인 방송보다는 뉴미디어 분야에 매료된 것이다. 새로운 방송 플랫폼인 뉴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평소 가지고 있던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그녀는 트위터에서 제2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 김민영 이사의 주요업무는 TV 파트너십,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트위터를 활용하여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여러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이나 트위터 실시간 투표 등의 연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플랫폼에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트위터- 자기표출의 득과 실

트위터는 사람들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유명인의 트윗이 수없이 리트윗되고 큰 사회적 파급력을 갖는 것은 더 이상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트위터가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김 이사는 "모두에게 공개된 대화의 실시간 확산(Public, Real-Time, Conversational, Distributed)"이라는 특성을 꼽는다. 사용자가 올린 공개적인(Public) 콘텐츠(트윗)가 리트윗을 통해 빠르게 확산(Distributed) 되고, 대화형 플랫폼의 특성상 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Conversational)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파급 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정치적·사회적 발언의 무대로 트위터가 많이 이용되는 까닭도 이와 관련이 깊다. 또한, 오프라인 지인 중심의 타 SNS보다 트위터는 비슷한 관심사를 기반으로 하여 인맥이 형성되기 때문에 더 솔직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도 트위터의 특징이다. 한편,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트위터의 매력이지만 이는 양날의 검이 될 때가 많다. 트윗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부적절하거나 분별력이 떨어지는 트윗이라면 아무리 명망 있는 유명인이더라도 순식간에 평판이 나빠지거나 대중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에

대비하여 회사 측에서는, 유명한 이용자들을 VIT(Very Important Tweeters)로 분류하고 이들과의 직접 미팅을 개최하여 VIT들의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했다. 이와는 반대로 소셜 플랫폼인 트위터의 순기능을 잘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유명인들도 많은데, 김민영 이사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서울의 박원순 시장을 대표주자로 꼽았다. 이들은 트위터를 지지층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트위터 이용의 바람직한 롤모델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내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위터로 많은 이들의 영혼을 달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이해득실이 크게 갈리기 때문에, 김 이사는 이용자들이 트위터가 갖는 사회적 파급력을 잘 인지하여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트위터- 경영전략의 도구

요즘 기업 현장에서 SNS는 경영의 큰 화두이다. 트위터가 갖는 새로운 플랫폼의 파급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시장에 있어서도 크

기 때문에, 트위터를 브랜드 이미지나 상품 홍보, 잠재 소비자정보 획득, CSR, CRM 등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트위터에는 실시간으로 대화와 이슈가 확산되는 기능이 있는데, 이를 활용한 리얼타임 마케팅이 최근 성황리에 활용된다고 김 이사는 밝혔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도 이처럼 실시간이슈와 대화를 잘 활용한 트위터 광고들은 일반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에 비해 10배 정도의 높은 광고 참여율(Engagement Rate)을 보이며 많은 기업들에게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트위터- 긍정적인 인생의 Tool로 활용

개인의 목소리를 무한히 확장해주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준과 동시에 관심사에 대한 지평을 넓혀주는 도구로서 트위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민영 이사는 스마트 세대들에게 1인 미디어이자 소셜플랫폼인 트위터를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 개인적·사회적인 순기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잘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영대학홍보대사 B.G.Ns 9기 신재원(13)

재학생 인터뷰

스마트 세대의 네트워크 활용법

SNS 안의 능동적 정보창구 '티리온'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서울대 경영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주고 있는 '티리온'의 관리자 김승권(경영, 12) 학생을 만났다. '티리온'은 김승권 학생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계정으로 초안지 제출이나 강의에 도움이 될 만한 보조자료 등을 제공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티리온'은 김승권 학생의 평소 생활 신조인 '남들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자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각 학과의 행정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 내용들, 직접 강의를 들으며 모은 자료, 또는 다수를 위한 학습자료를 '티리온'에 올려 학교 행정 등이 익숙하지 않아 해매고 있는 경영대 학생들과 공유했다. '티리온'의 존재가 많이 알려지고 자료도 점차 누적되면서, '티리온' 계정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커다란 정보의 창고가 되었다. 최근 이용자가 가장 많은 SNS 중 하나인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학생들과 소통한 점이 계정의 확산을 많이 도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보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오프라인 안내 책자들이 있지만 티리온은 학생들에게 1:1 상담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정보 안내를 도와주고 있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티리온'에 제공되는 정보들은 단순 개인 취합자료가 아닌 정보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소통의 산물이다. 9월 개강을 맞아 '티리온'은 여전히 많은 경영대 학생들의 지지를 받으며 정보 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영대학홍보대사 B.G.Ns 10기 김미송(14)

서울대 미술관 MOA 전시 취재

SNS가 가져온 위협 : 관음과 노출의 경계 가면의 고백-Confession of a Mask

소셜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관계의 본질에 대한 진실성에 의문을 던진다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에서 7월 10일(목)부터 9월 14일(일)까지 < 가면의 고백 > 전시가 진행되었다.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 가면의 고백 >에서 제목을 따온 이번 전시는 솔직한 고백의 장으로 여겨지는 SNS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인터넷 시장조사 및 동향 분석업체인 e-Marketer는 올해 전 세계 SNS 이용자 수를 약 18.5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개인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SNS는 사적인 공간으로 보이지만, 일련의 행위들이 지극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은 매우 공적인 공간이다.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을 원하지만 동시에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좁은 방안에 누워서도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SNS는 매력적인 소통 방법임에 틀림없다.

전시를 기획한 조나현 학예연구사는 "미디어상에서의 고백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더해지고 수정되는 증식하는 고백이다."라고 설명한다. 국내외 작가 23명의 작품으로 구성된 < 가면의 고백 >은 '가짜 사건을 고백하는 자'와 '고백을 엿보는 자' 두 가지 섹션

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섹션 - '가짜 사건을 고백하는 자'에서 가짜 사건이란 완전한 허구의 사건이라기 보다는 진실에 바탕을 두었으나 의도적으로 편집 혹은 조작된 사건을 의미한다. SNS 속 개인의 일상은 실제 모습은 가려 둔 채 가면을 쓴 연극적 모습이다. 이 가면은 비참하고 부조리한 자신의 삶을 과장하거나, 긍정적 모습만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지루한 일상은 화려한 가면 속에서 찬란한 모습으로 가공된다. 두 번째 섹션 - '고백을 엿보는 자'에서는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타인의 삶을 엿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여준다. 'Peering Tom'은 엿보기를 좋아하는 사람, 호색가, 혹은 개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SNS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Peering Tom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는 사회를 살면서 역설적으로 남의 삶을 훑쳐 보기를 원한다.

"관음과 노출의 경계: 소셜네트워크"라는 제목으로 열린 전시연계 강연에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재현 교수는 모든 관계가 계량화되는 SNS의 비인간성을 꼬집었다. 넓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자는 소위 follower로 명명되고, 누군가는 SNS 상에서 형성되는 관계에 대한 의무감과 소외감을 느낀다. 모두가 평등해 보이는 SNS 속에서도 자신을 얼마나 잘 포장하고 드러내는데 따라 보이지 않는 모종의 권력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회는 그런 측면에서 거짓된 진실이 승리하는 SNS의 왜곡된 본질과, 자신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타인을 훑쳐 보기를 원하는 인간 심리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영대학 홍보대사 B.G.Ns 9기 이희진(11)

서울대, 기업가센터 주관대학으로 선정

학내 창업 컨트론타워 구축

서울대학교는 지난 7월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기업가센터 주관대학으로 선정 됐다. 기업가센터 주관대학으로는 우리대학을 포함해 KAIST, 포항공대, 한양대, 숙명여대, 인하대 등 총 6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며, 우리대학은 국내 최초로 벤처경영학 연합전공을 신설하여 타 대학의 창업전공 운영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견고한 국내의 네트워크 등이 선정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대학은 앞으로 매년 5~6억 원씩 3년간 총 20억원 가량을 지원 받으며, 향후 성과에 따라 3년간 추가연장할 수 있게 된다.

대학 기업가센터는 미국 스탠포드, 하버드, MIT, 뱀슨대 등에서 대학생, 청년들의 창업,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운영중인 기업가센터 모델을 국내 대학에 도입한 것으로, 대학 내 여러 조직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교육, 보육, 연구, 컨설팅, 네트워킹 등이 one-roof로 운영되도록 통합한 단일조직이다. 각 부처 등을 통해 다양하게 수행중인 대학의 창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MIT, 스탠포드, 하버드, UC 버클리, 시카고, 뱀슨대 등 유수의 대학을 비롯한 200여개 이상 대학들이 기업가센터를 경쟁적으로 운영, 대학 내 기업가 정신 확산 및 창업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를 지향하는 스탠포드대학교의 경우 기업가센터 활동을 통해 동문기업만 4만여개, 540만개의 일자리 및 연간 매출액 2조 7천억 달러를 창출하는 등 프랑스 경제규모와 맞먹는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학교 대학기업가센터 전담기관인 경영대학은 지난 2009년 경영연구소 내에 창업경영연구센터를 개소한 바 있

며, 2013년 12월 벤처경영학 연합전공을 신설하고 교과과정을 운영중에 있다.

서울대 벤처경영기업가센터는 미래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도전적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아래 교육, 연구, 인프라 측면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측면에서는 기업가정신을 지닌 실천적 리더 양성을 위해 벤처경영 연합전공의 짜임새 있는 교과과정 운영을, 연구측면에서는 창업 연구 분야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연구분야로 인정되고 있음을 각인하고 국내 벤처창업에 대한 다양한 사례개발을 진행하며, 해외 주요 기업가센터와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개발의 질적 고도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인프라지원 측면에서는 체계화된 창업 인프라지원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학생창업과 대학 내 보유기술 사업화 등에 힘쓸 예정이다. 그 시작으로 SK경영관 58동을 증축하여, 학생창업 전용 보육시설(BI)을 2015년에 개소하고 학생 창업팀에게 임대할 예정이다. 김병도 벤처경영기업가센터장은 "창업교육, 연구, 실천창업 및 산학협력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학내의 풍부한 기술창업 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가센터를 통해 배출된 기업이 후배의 창업을 도와 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벤처경영기업가센터는 재학시절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창업실습의 부재로 재학생이 느꼈던 창업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을 해소시켜 줄 예정이며, 현재 창업 중이거나 창업을 희망하고,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대학창업 생태계 조성



SK관(58동) 증축 입면도

기업가센터 창업 보육실



2014년도 QS세계 대학 평가, 재무/회계 분야 40위 차지

지난해에 이어 5계단 상승, 50위권 내 서울대가 국내 유일
미국 코넬대(39위)/노스웨스턴대(41위)와 나란히, 중국 칭화대(44위)보다 4계단 앞서

QS TOP UNIVERSITIES Worldwide university rankings, guides & events			
1	97.5	Harvard University	USA
2	93.8	University of Oxford	UK
39	70.5	Cornell University	USA
40	69.2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이 영국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의 2013-2014년 재무/회계 분야 세계대학평가에서 40위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45위에 이어 5계단이나 상승했으며 100만점에 69.2점을 받아 중국 칭화대(44위)보다 4계단 앞선 결과이다.

QS가 선정한 재무/회계분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학 TOP50 위권에는 미국이 15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10개), 호주(7개), 중국(5개)순으로 한국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하다.

QS(Quacquarelli Symonds)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으로, 2004년부터 세계 유력 시사지를 통해 'QS 세계대학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학계 평판도 40% △졸업생 평판도 10% △연구영향도 20% △교수 대 학생 비율 20% △외국인 교수 및 학생 비율 10%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QS는 대학 전체에 대한 평가순위 이외에 상위 200개 대학을 대상으로 30개 전공 분야별 순위도 발표하고 있다. 분야별 랭킹도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를 사용해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서울대는 지난해 전체 대학 순위에서 35위를 기록한 바 있다.

고봉찬 재무전공 주임교수는 "경영대 졸업생들이 재무·회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전공 분야 교수들의 꾸준한 연구실적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향후에도 교육·연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달성해 지속적으로 순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무/회계분야에서 1위는 미국 하버드대(97.5점)가 차지했고, 그 뒤를 옥스퍼드대(93.8점), 런던 정경대(92.8점)가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글로벌 봉사단 GCS(Global Community Service) 중국(시안) 활동 내용 현지 언론에 집중 소개돼

-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던 역사의 도시 시안에서 학생 간 우의장존(友誼長存) 도모
- 지체 아동 시설 환경개선 봉사, 교민자녀 도서 공급 및 멘토링 지원
- 신화통신, 인민일보, 차이나 데일리 등 주요 언론에서 학생활동 관심 있게 보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글로벌 봉사단 GCS(Global Community Service)는 2014년 8월 5일(화) - 17일(일) 일정으로 중국 시안에서 6기 하계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특히, 이번 학생들의 활동 내용이 신화통신, 인민일보, 차이나 데일리 등의 중국 언론에 연일 소개 되었고 중국 교육방송에서 나와 취재하는 등 현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에 파견된 서울대 학생 봉사단(GCS) 18명은 중국 시안 시내에 위치한 장애인어린이학교를 방문하여 시설 환경 개선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는데, 시안 장애인어린이학교는 시안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장애인시설로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는 민영시설이라 이번 봉사단의 도움이 매우 컸다고 전했다. 봉사단은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의 방을 친환경적인 놀이방으로 만

람을 실시하였다.

서울대 학생 봉사단(GCS)은 순수 봉사활동과 더불어 문화 교류 활동도 진행했다. 학생들은 시안을 대표하는 서북공업대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간 우의를 도모하고 한·중 문화를 이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들이 방문한 서북공업대학교는 중국내 유일의 항공, 우주, 해양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한 대학으로서 이번 서울대학교 학생 봉사단의 방문을 적극 지원하고 환영해 주었으며 우수학생 13명을 특별히 선발하여 서울대 학생들과 문화 교류 및 봉사 활동을 함께 진행하도록 도왔다. 서울대 학생들은 서북공업대학 학생들과 함께 만두와 떡볶이를 만들며 양국의 손맛을 나누기도 하고 전통 의복을 체험하는 등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진행 및 향후 확장된 교

류관계를 위한 세미나도 가졌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산하단체인 글로벌 봉사단(GCS)은 경영대학 동문의 후원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중국과 베트남으로 꾸준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도교수로 현지 활동에 참가한 박진수 교수(경영대학 학생부학장)는 “이번 하계 활동은 마음이 따뜻한 리더를 꿈꾸는 모든 하계 봉사, 멘토링, 문화교류 등 학생들이 짧은 기간에도 준비해 간 일정들을 알차게 잘 소화해 냈다. 뿐만 아니라 현지 중국 언론에 이들의 활동이 많이 보도가 되어 외교관 역할까지 훌륭히 잘 해 주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류관계를 위한 세미나도 가졌다.

한편, 봉사단이 방문한 시안은 얼마 전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고향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했던 곳으로 중국의 삼천년 고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다. 또한 중국 젊은이들에게는 공학이나 IT관련 전문대학의 교육 도시이며 중국 IT기업의 생산, 연구 거점 도시로도 유명하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삼성이 8조원(약 70억 달러)규모의 투자를 통해 대규모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시안에 조성 중에 있다. 중국 정부의 서부 대개발 정책으로 앞으로 시안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한인 사회의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서북공업대학교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안 방문으로 인해 조성된 한류 열풍 때문인지, 이번 서울대학교 학생 봉사단 방문 시 같이 활동할 학생 자원자 모집에 약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서북공업대학 국제교육학원부원장 순우빈(孫武斌)교수는 “이와 같은 문화 교류 활동을 앞으로 정상화한다면 더욱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하여 중·한 우정 교류의 산증인이자 수호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전하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에 큰 기대를 보였다.



중국 교육방송 서울대 GCS활동 취재 및 방영 자료 화면(8월 6일자 뉴스)



시안 장애인어린이학교 놀이방 꾸미기 및 환경 개선 봉사활동 중인 서울대 GCS 봉사단



인민일보 8월 7일자 GCS활동 보도내용



한·중 학생 교류 : 우의장존(우정 영원하길) 신화통신 8월 6일자 보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부 학생 대상 2014학년도 하계방학 기업탐방 실시

경영대학 하계 기업탐방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동안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경영대학 기업탐방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이 주최하고 경영대학 글로벌 리더십 센터와 경영대 학생회가 주관하였으며 경영대학 주전공, 복수전공, 연합(계)전공 및 부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 및 의의는 프로그램 기간 동안 학생들이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의 홍보관과 실무현장을 직접 방문해보므로써 각 기업의 역사를 배우고 현재 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미래의 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기업탐방에는 총 84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안중호 교수가 현장지도 교수로서 학생들과 전 일정을 함께 하였다. 참가 학생들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서울의 제일기획, 분당의 네이버, 용인의 다이소, 울산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기업 탐

방 활동과 더불어 거제도 외도와 해금강의 명소를 돌아보고, 경영대 학생회에서 마련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학번을 불문하고 학생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생생한 산업현장을 둘러보면서 흥미로워하였고 졸곧 신이 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기업을 둘러보며 혹은 홍보영상을 보면서 생겼던 궁금증을 기업 설명 시간에 질문을 통해 해소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혜빈(경영14)양은 기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경영진 및 직원으로부터 기업의 업무에 대해 직접 들음으로써 기업경영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영학 과목들이 각각 어떤 업무에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는지 배워 경영학과 학부생으로서 경영학 공부에 대한 목적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경영대학 홍보대사 B.GiNs 10기 박수진(14)

꿈을 찾아 함께하는 동행(同行) 제 4기 드림멘토링 START



경영대 드림멘토링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 국가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국가교육 선도그룹으로서 행해야 할 지식나눔 및 교육 기회균등 실현을 모색할 뿐 아니라 경영대학 학생들이 리더로서 지녀야 할 휴머니즘, 이해심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드림멘토링은 타 멘토링 프로그램과는 달리 기업인 또는 교수(시니어 멘토)와 경영대 학생(학부 멘토)으로 멘토가 구분되어 있으며, 시니어

멘토들이 프로그램에서 인생의 큰 방향과 틀을 제시해주면, 그 속에서 학부 멘토들이 청소년 멘티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까운 입장에서 학습 조언과 고민등을 들어주고 함께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멘티들이 그들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함께 적합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9월 13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제 4기 활동을 시작하는 드림멘토링은 1기부터 3기까지 문화체험, 기업방문, 인적성검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멘티들의 성

장 뿐 아니라 시니어, 학부 멘토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하며, 경영대학 내·외적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호평에 힘입어 이번 4기 드림멘토링에서는 기존 세상을 품은 아이들, 안산 다문화센터 기관 외에 엑시트, 한빛 종합사회복지관, 겨레얼학교, 광명보육원이 새로 참여하며 보다 넓은 범위의 멘토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첫 행사인 오리엔테이션에서 김병도 학장은 인사말에서 드림멘토링이 지난 2년의 세월 동안 내용적으로나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밝히며, 드림멘토링을 만든 이유 중 하나로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고 싶었던 점을 꼽았다. 향후 60년은 함께하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이며 드림멘토링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사는 사회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회 안팎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된 만큼 안전에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후원기업대표 한국공항공사 장성호 부사장은 후원금을 전달하며 드림멘토링이 멘토와 멘티 모두가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사회공헌활동을 꼽으며 드림멘토링이아말로 훌륭한 사회공헌활동이며 한국공항공사가 후원기업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말했다.

시니어 멘토 대표인 환경공단 김애선 처장은

멘티들에게 드림멘토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몰두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느냐에 따라 얻어갈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밝히며 멘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 외에 시니어 멘토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박희준 교수, 환경공단 김애선 처장, 한국석유공사 권오복 부장, 공무원연금공단 정태범 부장, 한국마사회강경희 부장, 한국농촌공사 김남표 부장등이 참여했다.

청소년 멘티 박승철 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유로 진로 탐색 및 자신의 꿈 찾기를 꼽으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제 4기 드림멘토링은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문화체험, 진로·적성검사, 캠퍼스 투어, 체육대회, 사회봉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박진수 부학장, 서지희 글로벌 리더십 센터장의 지도하에 17명의 학부 멘토들이 직접 기획·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멘티들은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 탐색에 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련의 활동을 마친 후 11월 수료식에서 멘티들은 팀 별 과제 및 활동 소감 발표를 끝으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번 4기 드림멘토링이 멘토와 멘티 모두가 즐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서 자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도전을 경영하라! 제3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청소년 경영캠프

경영학도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



“캠프에 참가한 후 확실하게 진로를 결정하게 됐어요...”

“경영가는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하고 협업을 통해 기업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경영인의 꿈을 위해 철저히 노력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8월 8일(금)부터 8월11일(월)동안 3박 4일에 걸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청소년 경영캠프(이하 경영캠프)가 진행되었다. 경영캠프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홍보대사 B.GINs가 주체가 되어 모든 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로서, 경영학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에게 경영학을 접하고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경영캠프는 3회를 맞이하여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참가를 희망한 만큼 그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멘티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친 기색 없이 얼굴 가득 설렘을 안고 개회식에 참여하였다. 김병도 경영대학장의 환영사로 시작을 알린 경영캠프 첫날은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멘토와 멘티의 자기 소개 시간을 가진 후 박진수 경영

대학 학생부학장의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이어서 진행된 경영학 소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접하기 힘든 경영학 세부 과목들을 멘토가 직접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영학소개는 3박 4일간의 일정에 거쳐 계속 이루어졌는데, 세부 과목으로 경영학개론, 생산, 재무, 마케팅, 조직, MIS가 편성되었다. 김해미루 경영대학 학생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강연 후 동아리 특별공연이 이어졌다. 서울대학교 여성 댄스 동아리 고어헤드와 흑인 음악 동아리 바운스 팩토리가 공연에 참가하여 멘토와 멘티의 흥을 돋아 주었다. 다소 고된 첫날의 일정을 마친 멘티들은 기숙사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였다. 둘째 날의 주요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캠퍼스투어와 창업 경영 시뮬레이션, 레크레이션으로 구성되었다. 멘티는 넓은

교정을 직접 걸으며 짧은 동영상 촬영하는 미션을 수행하였다. 창업 경영 시뮬레이션은 음료와 과자 산업군에서 각 조별로 한 개의 신제품을 개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가던 멘티들은 각 산업군에 대한 분석이 실려 있는 가이드북을 참고하며 열정적으로 참가하였다. 저녁 식사 후에는 캠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을 즐기며 아직 남아있을 여백함을 없애고 서로 더욱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셋째 날 아침에는 과목별 비법전수가 이어졌다. 영어, 수학, 국어, 내신의 네 영역에 대해 입시를 경험한 선배로서 멘토들은 보다 실질적인 조언을 하고자 하였고 멘티들에게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는 평가를 얻었다. 모두가 땀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참

가한 체육 활동 후에는 전달 기획한 신제품에 대한 짧은 광고를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고는 조원 전원이 연단에 나와 연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짧은 준비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가득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일정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간 학생들은 마지막 날 있을 창업 경영 시뮬레이션 최종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밤잠도 미루고 새벽까지 공부하는 열성적인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날 모든 조의 최종발표가 끝난 후 우수 조에 대해 시상하는 것으로 경영캠프의 모든 일정은 마무리되었다. 학생 홍보대사 B.GINs의 철저한 준비와 교수진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물심양면 지원에 힘입어 3박 4일간 큰 사고 없이 경영캠프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경영캠프는 멘티 뿐 아니라 멘토에게도 여러 배움의 기회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3박 4일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멘티가 학업에 대한 큰 꿈과 의지를 다져 훌륭한 인재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하였길 기대해본다.

경영대학 홍보대사 B.GINs 9기 이희진(11)

경영대학 Hot한 동아리

경영대학 태권도 동아리 상송회(商松會)

상송회(商松會)는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며 그 친목을 다져가고 있는 경영대학의 태권도 동아리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상송회의 주장을 맡고 있는 박제욱(경영 12) 학우를 만나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았다.



[Q] 상송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상송회는 태권도 동아리로 '태권도 정신 함양한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송회는 상과대학의 '상(商)'자와 당시 종암동에 있었던 상과대학 내 송림(松林)의 '송(松)'자를 따서 상송회(商松會)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상송회는 매우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55년 지창수 선배님께서 엄운규 사범님(전 국기원 원장)을 모시고 운동을 시작하였고, 내년 60주년을 맞습니다.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전 총리, 장관, 국회의원, 기업인, 교수님 등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경영대의 조동성 교수님, 박남규 교수님이 상송회 출신이십니다. 현재 상송회는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자기 수련과 단결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과대학에서 비롯된 만큼 현재 경영·경제 전공생들이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최근 공대, 인문대, 자전 등 여러 단과대 학생들이 함께 운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력,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태권도 정신 아래 자기 수련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 91학년부터 13학번이 한 데 어울려 함께 운동하고 있습니다.

[Q] 상송회의 활동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재학생들은 매주 월·수 저녁 9시부터 10시(방학중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임보순 사범님의 지도 아래, 학교 체육관 3층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동작에서 시작하여 품새, 발차기, 겨루기 등 종합적으로 운동하고 있으며, 운동 후에는 종종 닭과 맥주를 먹으러 갑니다. 이러한 수련을 바탕으로 한 학기에 한 번 태권도협회 감독 아래 자체 승급심사를 진행하며, 일 년에 한 번

국기원 승단심사를 보러 갑니다. 이외에도 봄·가을에는 산행, 여름·겨울에는 합숙 훈련을 진행합니다.

선배님들과의 친목활동도 상송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가장 큰 행사는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로, 55학번 선배님부터 13학번 재학생들까지 함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선배님들께서 재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주셔서 졸업생과 재학생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달 진행되는 '선배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에서 활약 중이신 현직 선배님들을 뵈고 함께 식사를 하고 조언을 듣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Q] 상송회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 또는 경영대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처음 상송회에 들어간 계기는 어릴 때 태권도를 배우다 검은띠까지 따지 못하고 그만둔 것에 대한 미련과 그것을 매고 있는 멋스러운 모습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을 검은띠를 매고 난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음은 상송회만의 강렬한 매력과 동아리 특유의 가족 같은 분위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과 뜻 깊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동아리를 찾고 계시다면 저희 상송회에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상송회?' 아마 그 이름이 생소한 분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운동 동아리, 그것도 구기 종목을 하는 동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덜 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 동아리를 꼭꼭 숨겨, 회원들끼리만 그 좋은 면면을 공유하고자 하는 바람도 알게 모르게 한몫 작용했다고 생

각합니다. 그만큼 상송회는 숨겨진 진주와도 같은 동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사회 속에서 요즘 대학생들은 정말 바쁩니다. 학점관리, 영어공부에 다양한 경력 쌓기까지. 하지만 저는 체력과 스트레스 관리능력 그리고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송회 활동을 통해 이 세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동료들과 함께 땀에 흠뻑 젖을 만큼 운동하며 체력을 키우고, 큰 소리로 기합을 지르고 발차기를 하며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 각계각층에 퍼져있는 선배님들을 만나 진로와 인생에 대한 소중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고, 함께 운동하는 선배배, 동료들과 이해관계를 떠나 맘으로 뭉쳐진 끈끈한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이가 많다고, 운동을 잘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송회를 통해 태권도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함께 땀 흘리고 소리 지르며 연령과 성별을 떠나 우정과 의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송회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큰 재산이 될 건강과 지혜, 그리고 영원한 우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지루한 나날들에 지치지 않는가요? 색다른 경험, 소중한 도전을 함께 할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홍보대사 B.GINs 9기 김민서(13)



2014학년도 1학기 Dean's List 총 23명 선정

전공과목 5개 이수, 복수전공 및 연합전공 학생도
대상에 포함 등 새롭게 변경된 기준 적용

2학기 개강 첫날인 9월 1일, 학내 식당인 소담마루에서는 이번엔 선정된 딘스리스트(Dean's List) 대상 학생들과 학장단 교수와의 오찬행사가 있었다. 딘스리스트에 선정된 학생 23명은 2014학년도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전공과목 5개(15학점) 이상 수강, 총 평점이 4.0이 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복수전공생 1명, 자유전공학부 학생 2명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학기까지 전공학점 12학점이상(4과목)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 하였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요구되는 전공수강 학점은 늘어난 대신 그 대상을 복수(연합)전공 학생까지 확대하여, 경영대학 딘스리스트의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MBA 소식



Doing Business in Asia

서울대 MBA-한·중·일 3국 순회 연수프로그램 실시

경영전문대학원은 중국 북경대, 일본 히토츠바시대와 손잡고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MBA 학생 대상의 한중일 순회 하계 연수프로그램인 'Doing Business in Asia (아시아비즈니스의 이해, 약칭 DBIA)'를 8월 12일부터 27일까지 약 보름간 개최했다. 각 대학에서 선발된 28명의 참가 학생들은 행사 기간 동안 북경, 동경, 서울 순으로 순회하며 현대자동차 북경지사, 스타벅스 차이나, 스타벅스 재팬, 무지, 대한항공, 후지 제록스 등 각국의 분야별 대표기업들을 탐방하는 한편, 이번 프로그램의 공동연구주제안고령화 사회와 기업경영이슈를 집중 연구했다. 본 프로그램은 3국 교육부 공동 지원의 <캠퍼스아시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의 대표기업 탐방, 전문가 특강, 그룹프로젝트, 전문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한중일 3국의 비즈니스 환경, 기업경영 스타일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발견하게 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 3국을 주축으로 하는 신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통찰력을 함양 시켜 나가는데 그 목표가 있다.



Doing Business in Korea

UCLA, NYU, SMU등에서 31명의 학생들이 참가, 기업방문, 문화체험등 진행

경영전문대학원은 'Doing Business in Korea(한국비즈니스의 이해, 약칭 DBiK) 프로그램'을 지난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1주간 실시했다. DBiK는 서울대 MBA 외국인학생들을 위해 정규 선택과목의 개설된 프로그램이지만, 해외교류대학 MEA재학생들에게도 수강기회를 열어 매년 UCLA, NYU, 토론토대, 캠프리지대, 싱가포르국립대 등 해외 유수의 파트너 대학에서 학생들을 보내오고 있다.

이번에는 UCLA, NYU, SMU 등에서 재학생 31명이 본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참가하였고 본교 MBA학생들과 북촌 막걸리 체험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를 배우고, 한국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을 학습하고 대표 기업들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전자 인력개발원을 양일에 걸쳐 방문하고 본교 교수진 외에도 현대자동차 조원상 부장, GE Korea의 정태희 전무등 산업계의 분야별 대표들의 강연을 듣는 기회를 가져 뜻깊은 프로그램이었다는 평이다.

EMBA 소식

EMBA Family Day 개최

EMBA재학생 가족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특강, 캠퍼스투어, 유아 자녀 대상 마술쇼 등 다양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으로 성황리 마쳐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지난 5월 11일(일), Executive MBA Family day 행사를 실시했다. EMBA 학생회가 주관이 되어 매년 5월에 실시하는 본 Family day 행사는 EMBA 재학생 가족들의 서울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배우자 또는 부모가 공부하는 학교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EMBA 재학생 및 가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되어 학교 홍보 동영상 관람 후, 송인성 주임 교수의 환영인사가 있었다. 이어 10대 자녀들을 대상으로 경영대학 홍보대사 이준하 학생의 "공부 잘하는법 특강"이 진행되었는데 학부모인 재학생들과 자녀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더불어, 유아 자녀들에게는 마술쇼등 신나는 볼거리가 제공되었다. 이후, 경영대학 학생 홍보대사들의 가이드로 진행된 캠퍼스 투어는 너른 캠퍼스와 각종 시설들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참석 가족들은 "말로만 들어왔던 서울대학교를 직접 경험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강의실과 도서관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EMBA 하계 Global Residency Program(GRP) 진행

3개 팀으로 나누어 미국, 프랑스, 스페인으로 각각 다녀와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문화를 체험하고 유명대학 강의 수강 기회도 가져



미국팀(7.13.-20)



프랑스팀(7.6.-13)



스페인팀(7.8~13)

EMBA 재학생 120여명이 여름방학을 맞아 하계 Global Residency Program을 다녀왔다. EMBA 과정은 학생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하여 해외 유명대학이 제공하는 강의를 듣고 사업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심층 조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위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 여름은 3개 팀으로 나누어 미국, 프랑스, 스페인 3개국에 다녀왔다.

노상규 MBA 부학장과 양홍석 부주임 교수가 인솔한 미

국팀은 예일(Yale) 대학에서 행동 경제학(Behavioral Economics)등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고, New York 증권거래소(NYSE)를 방문하였다. 송인성 주임 교수가 인솔한 프랑스팀은 Essec 대학에서 향수 워크샵등 Luxury를 주제로 한 강의를 듣고 세계 최초 백화점으로 알려진 LVMH 그룹 소유의 봉마셰(Bon Marche) 백화점을 방문하였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스페인팀(이관휘 부주임 교수 인솔)의 경우 마드리드에 위치한 IE Business school에서 기업가 정신 및 혁신을 주제로 한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스페인 최대 백화점인

El Corte와 WAYRA라는 통신회사를 방문한 후, 세계적인 건축가인 가우디의 작품들이 즐비한 바르셀로나로 이동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금번 GRP에 참여한 EMBA 학생들은 GRP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리더가 되기위한 국제적인 비즈니스 감각 고양은 물론 서울대학교 EMBA 강의를 해주시는 서울대 교수님들의 강의가 결코 해외 명문MBA 강의에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값진 경험이었다고 한다.

동문이 된다 - 이색 진로 선택 사례



“영화는 메시지보다 정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첫 장편영화 <들개> 발표한
김정훈 영화감독(경영 어학번 졸) 인터뷰

경영대 졸업생으로는 드물게 영화계에 도전장을 내민 김정훈(32) 감독의 첫 장편영화 <들개>가 개봉했다. “영화는 메시지보다 관객들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흥이나 정서가 더 중요하다”고 자신의 영화철학을 이야기하는 그를 비긴즈 취재팀이 직접 만나보았다.

경영대 출신으로서 영화감독의 길을 내린다

[Q] 먼저 감독님의 첫 장편 <들개>의 개봉을 축하드립니다! <들개>가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였는데요, 소감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약간 설렙니다. 상영은 비공식적으로 이미 몇 번 하긴 했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장편을 완성해서 상영한다는 것에 뿌듯함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의 꿈을 이루는 데 첫 단추를 끼운 느낌인데,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

[Q] 영화감독이라는 진로를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영화감독이라는 꿈을 갖게 되신 건지요?

어렸을 때는 그저 막연한 꿈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막연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영화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어쩌면 나도 한 번 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Q] 영화감독이라는 진로를 결정한 순간부터 오늘 첫 장편이 개봉되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셨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도까지 회사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영화 <이태원살인사건> 연출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영화아카데미에 들어갈 때 까지 1년간 백수로 지냈는데, 그 때 많이 힘들었어요. 20대 후반, 이제 곧 서른이 되는데 백수로 지내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동기들 중 많은 이들은 이미 그때쯤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영화하고 있어도 되나’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지원한 한국영화아카데미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둘 다 합격해서 한국영화아카데미에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둘 다 떨어지면 영화감독에 대한 미련을 버리려고 결심한 상태였죠.

[Q] 감독님이 소속된 한국영화아카데미는 어떠한 방식으로 미래의 영화감독을 배출해내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 영화를 만들기 위해 거쳤던 ‘장편제작연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에 입학하면 1년간의 정규 교육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실기 위주로 실습작품, 단편영화 촬영 등을 하게 됩니다. 1년이 끝나면 졸업생들 중 장편제작연구 과정에 진입할 사람을 선발해요. ‘트리트먼트(시놉시스보다 구체적인 장편 시나리오)’를 제출하면 검토 후 1년에 3~4명이 선발되고, 선발된 사람들은 1년 동안 한 편의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겨울에 촬영해서 개봉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져라

[Q]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화감독이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 아닌가 싶어요. 분명 감독님의 학창 시절도 평범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진짜 놀기만 한 것 같아요. (웃음) 시험공부는 시험 전날에 하루 하는 것이 전부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놀기만 했죠. 졸업할 때까지 취업준비는 해본 적이 없어요. 요즘 대학생들은 그렇게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공부하기 싫어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려고 공부했던 거고,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더 이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기는 싫었어요. 재미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여행도 하는 등 관심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했던 동아리는 ‘알라성’이라는 대학 최초의 영화동아리입니다. 예전에는 동아리에 유명한 선배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태원 살인사건>을 찍은 홍기선 감독, 한국 최고의 촬영감독으로 인정받는 김우형 촬영감독, 박광수 감독 등등 쟁쟁한 선배들이 저희 동아리 출신입니다. 저는 2004년에 입부해서 처음으로 영화 촬영을 접했습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영화를 분석하는 법, 촬영하는 법 등을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Q] 서울대에 입학해야겠다는 생각은 종교와도 같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토록 서울대에 입학하고 싶어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전형적인 ‘강남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을 포함해서 주위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서울대에 입학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Q] 그럼 실제로 입학해서 겪어 본 서울대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러웠나요?

서울대학교에 진학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미 입학한 한 순간 제 목표는 달성된 거였어요. 입학 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 입학해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열심히 놀았을 뿐, 열심히 해서 많은 돈을 벌겠다는 식의 목표는 없었습니다.

[Q] 비록 ‘놀았다’고 표현하셨지만, 감독님께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진정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저화와 같은 이 시대 젊은이들은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는 주위 시선에 얽매어 ‘남들이 보기에 번듯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감독님께서도 이러한 현실을 영화 속 ‘정규’의 모습을 통해 그려내고자 하셨던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인생 선배이자 학교 선배로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대 청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즐거움을 느끼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20대 때 경험을 통해 알아나가기야 해요. 자신만의 길을 찾지 못하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기 힘들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져도 본인이 행복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요. ‘스스로에게 솔직해져라’ 이것 이제가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입니다.

경영대학 홍보대사 B.G.Ns 10기
배지훈(11), 김미송(14)

동문이 된다 - 이색 진로 선택 사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구성준 동문
(학사08)의 방송국 PD 입성기

KBS 예능국 구성준 PD (14년도 입사),
現 연예가중계 연출팀 소속

[Q]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PD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PD가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원래 광고나 마케팅 관련 직업을 갖고 싶었습니다. 광고나 마케팅 분야에 종사함으로써 직접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군대 전역 후 2학년 때 광고회사의 인턴 프로그램을 참여한 적이 있는데, 아이디어를 내서 발표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등의 인턴활동에 흥미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 피디시절을 준비하다가 광고계에 종사하게 되신 분들도 많아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피디라는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피디도 광고, 마케팅 관련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직접 기

획해서 만든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광고나 마케팅은 브랜드나 상품에 대한 홍보라는 측면에서 콘텐츠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송 피디라는 직업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 PD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가요?

방송국 입사시험을 흔히들 ‘엔론고시’라고 부르는데, 엔론고시에는 작문시험, 상식의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프로그램 기획안을 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외, 한국어 능력시험 점수와 공인영어인증시험의 점수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시험은 작문시험과 프로그램 기획안 시험입니다. 이 두 분야의 시험을 준비할 때는 엔론고시를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과 스터디를

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지식보다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해 책이나 영화, 방송 등을 많이 보고 다양한 콘텐츠에 늘 노출되어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경험을 통해 쌓은 내공과 함께 엔론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방송국에서 피디를 워낙 조금 뽑고, 시험 과목 특성상 공부를 할 때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불안해지기 쉬운데, 그런 만큼 자신과 자신의 합격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Q] 구체적으로 PD가 어떤 직업인지, 선배님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디’라는 단어의 어원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첫째는 ‘ProDucer’를 줄여 PD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는 이론과, 둘째는 ‘Producing & Directing’을 줄여 PD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는 이론입니다. ‘Producing & Directing’이라는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피디는 ‘Producing’, 즉 기획, 제작과, ‘Directing’, 즉 연출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정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와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정해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보통 피디가 된 뒤, 8~10년 동안은 영상 제작과 편집을 주로 담당하고 그 후로는 기획과 연출을 주로 담당합니다. 현재 저는 KBS 예능국에서 일하고 있고, ‘연예가 중계’라는 프로그램에 방송될 영상을 매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

의 근무시간과 복장, 사무실환경은 매우 자유로운 편이라 대학교의 동아리와 분위기가 비슷할 정도입니다.

[Q] PD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과 보람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힘든 점은 생활이 불규칙하다는 것입니다.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일반 회사원과는 달리 방송 피디는 방송 프로그램에 따라 스케줄이 정해지기 때문에 생활이 규칙적이기 힘들습니다. 그래서 피디가 되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Q]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학창시절에 가장 후회되는 점이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경험하는 것이 조금 부족했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로를 진지한 고민 없이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것을 도전해보면서 새로운 길을 주도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전이 두려운 만큼 도전을 함으로써 얻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님들이 세상을 조금 더 크게 보면서 주변에서 기대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들도 충분히 생각해보고 난 후,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을 선택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경영대학 홍보대사 B.G.Ns 10기 조현지(14)

신임교수 인터뷰



박선현 조교수

전공분야: 국제경영(경영전략)

경영대학은 2014년도 2학기 신임 교원으로 박선현 교수(경영전략, 국제경영 전공)를 임용했다. 박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현업에 잠시 몸담았다가 이후 미국으로 유학하여 미시간 대학교에서 경영전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시간 대학교와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USC)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다시 모교 교수로 부임한 박선현 교수를 학생기자가 만나보았다.

20년 만에 다시 모교로

박 교수는 경영대학 학부 학생으로 1994년도에 입학 이래, 20년 만에 교수로서 모교에 돌아오게 되어 큰 영광이라며 임용 소감을 밝혔다. 본인이 다녔던 시절보다 학교 시설이 훨씬 좋아졌고, 학생들도 밝아 보인다고 돌아온 모교에 대한 짧은 인상을 말했다. “학부시절엔 도서관 근로장학생으로 일했는데 도서관 시간이 끝난 뒤 책상과 의자 정리를 하고 서가의 책들을 정리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세부전공과 유학

박 교수는 윤석철 교수의 ‘경영학의 진리체계’의 머리말을 인용하며 “학문에도 피아노 건반의 배열처럼 체계가 있다”고 했다. 수학이나 철학, 인문학과 같은 기초 분야들이 먼저 나오고, 공학, 의학, 경영학과 같은 응용학문이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는 이야기다. 그 중에서도 경영학은 특히나 다른 사회과학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으며 동시에 당장 현실에 적용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더욱 흥미로웠다고 한다. 사회학과 사회심리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경영전략을 세부전공으로 택한 이유라고 했다. 석사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박사과정을 밟게 되었는데, 사회 경험이 강의실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미시간 대학교는 전통적으로 대학원이 강한 학교이며 사회학과 사회심리학, 정치학 부문이 미국 내 최상위권에 드는 학교이다. 특히, 그가 관심 있던 경영전략은 학제간 연구가 중요한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잘 되어있고, 박사과정 기간 언제든 사회학, 심리학 등의 전공수업을 들을 수 있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최근 관심 연구 주제

“대중의 지혜 (The Wisdom of Crowds)”

그가 최근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자본시장 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과정의 무엇이인지에 대한 것이다. 애플(Apple)과 같은 상장기업(public company)의 경우 대략 15~20명 정도의 기업 금융 애널리스트(corporate financial analyst)들이 주당순이익(EPS)을 1년 전부터 예측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는 의사결정의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이라는 측면에서 재미있는 두 가지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은 개인들의 EPS 예측치에 큰 차이가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측치가 아주 빨리 하나의 값으로 수렴되나 1년 뒤 회사가 실제 EPS를 발표할 때 보면 그 정확성이 크게 떨어져 있음을 보게된다. (efficient, not effective), 또 다른 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은 개인의 EPS 예측치가 아주 많이 다르며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는 속도도 아주 느리지만 결국에는 그룹 전체 수준에서 정확한 값을 예측해낸다는 것이다 (effective, not efficient).

재미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Wall Street의 금융 전문가, 혹은 명망있는 애널리스트가 포함된 그룹일수록 수렴 속도는 빠르지만 되려 궁극적인 예측치의 정확성은 떨어지는 전자의 그룹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전문가 혹은 지위가 높은 애널리스트가 있는 그룹일수록 군집행동 (herding behavior)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전문가가 다행히 정확한 값을 예측해내면 그룹의 수렴 예측치도 정확해질 수 있지만, 전문가가 틀리게 되면 그룹 모두의 예측치가 틀리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로 의견이 수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하나,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그룹 전체 수준에서는 궁극적으로 실제 EPS를 정확히 예측해낼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는 대중들의 독립적인 의견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룹의 인지 다양성 (cognitive diversity)이 훼손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선현 교수는 이와 같은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가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주제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first-copier로서 주어진 선진 모델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베끼는 데에만 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와 기업이 first-copier가 아닌 first-mover로서 새로운 모델과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해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서 소수의 전문가가 이끄는 대로 정해진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과거의 방식을 탈피하고,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제대로 된 생각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러한 대중의 지혜가 작게는 조직의 팀 프로젝트에서부터 기업 최고경영진의 의사결정,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여론이 형성되고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선현 교수는 이와 같은 전략적 의사결정 과

정에 대한 연구가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주제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first-copier로서 주어진 선진 모델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베끼는 데에만 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와 기업이 first-copier가 아닌 first-mover로서 새로운 모델과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해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서 소수의 전문가가 이끄는 대로 정해진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과거의 방식을 탈피하고,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제대로 된 생각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러한 대중의 지혜가 작게는 조직의 팀 프로젝트에서부터 기업 최고경영진의 의사결정,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여론이 형성되고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강의와 연구에서의 원칙 “Learning by Doing”

박선현 교수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강의에 임한다고 한다. 경영전략의 같은 내용을 다루어도 학교마다 그리고 학생마다 전혀 다른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가르치는 교수도 많은 것을 배우

게 된다고 한다. 또한 그는 learning by doing을 강조했다. 가능하면 교재보다는 다양한 비즈니스 케이스들을 class room activity를 통해 다루어 보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다. 실제로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교재는 없지만, 기업의 실제 케이스들을 다루면서 간접경험을 해보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큰 공부가 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전하는 말

박 교수는 대학이 당장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로서 중요성을 지닌 문제들을 시간과 돈을 들여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바로 대학이 사회에 가지는 기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생들도 재학 기간 동안 정말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하며 열정을 다해 그것들을 시도해보라고 조언했다. “창업이든 독서든 연애든 지금이 아니면 해볼 수 없는 도전과 실패를 해보세요. 나이가 들면 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경험들이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경영대학 홍보대사 B.G.Ns 9기 유현상(09)

박선현 신임교수 프로필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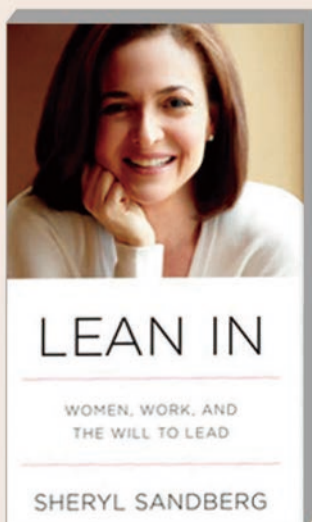
Ph.D. in Strategy, Ross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2012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rporate Strategy Concen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3
International Study Program, University of St. Gallen (HSG), Switzerland, 2002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경력

Marshall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ssistant Professor of Strategy, 2012~2014
Ross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Michigan, Instructor, 2009
Management Research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 2006~2007
Mercedes-Benz Korea, Controlling Manager, 2004~2006
Daimler Chrysler, Asian Management Associate Program, Management Associate, 2002~2004

경영대학 교수진 릴레이 도서 추천

박소정 교수



Lean In

by Sheryl Sandberg

여성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어려움을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일이다. 워킹맘은 엄마가 필요한 아이의 울음은 뒤로 하고, 일꾼이 ‘엄마’이거나 ‘여성’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 없는 남성 위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이를 악물고 살아남아야 한다.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충을 느끼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하버드대 경제학과와 MBA를 모두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현재 페이스북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셰릴 샌드버그(Sheryl Sandberg)는 저서 ‘린인(Lean In)’에

서 여성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와 여성 리더가 부족한 까닭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자신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생생한 경험담을 전달한다. 그녀는 여성은 대체로 기회를 자신감 있게 포착하지 못하고 뒤로 주춤 물러서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의 경험담은 사회구조가 문제라며 불평하던 필자에게 ‘우선 나 자신부터 변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 여성이 자 임산부였던 그녀 자신이 회사의 임원이 되어서 야불편함을 깨닫고 임산부용 주차장을 마련했다는 이야기 등은 현실이 너무 힘들어 가끔 주저앉고 싶었던 내게도 앞으로 더 나아가갈 동력을 주었다. 이 책은 아직은 학생이라 현실적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을, 그러나 세계적 리더로 성장해 나갈 잠재력을

가진 서울대 경영대의 여학생들에게 앞으로 리더가 되기 위해 겪어야 할 일들을 간접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신화의 일부가 된 저자의 여정은 또한 앞으로 여러분에게 닥칠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하버드 MBA 최우등 졸업’이라는 간판에 만족하지 않고 남들과는 달리 위험을 감수하면서 실리콘밸리로 가서 성공한 저자의 이야기는 비단 여학생뿐 아니라 남학생들에게도 에너지를 불어 넣어줄 것이라 생각된다. 이 책은 단순한 ‘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슈’로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힘과 열정이 넘치는 리더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경영대학 홍보대사 B.G.Ns 10기 조현지(14)

2014학년도 회계학 학습 장학금 수여식

후배사랑으로 조성된 동문들의 장학기금, 회계분야 진출을 원하는 학생에게 매년 지원하고 있어



지난 4월 14일(월), '회계학 학습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회계학 분야에 활동중인 동문들의 후배사랑 목적으로 조성된 장학기금으로 매년 20여명의 재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자유전공학부에서 경영학 전공을 선택한 박지윤(09)학생과 복수전공생 김솔아(10)학생을 비롯하여 경영대학 학부학생 20명이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2014학년도 1학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후원 장학금 전달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장학금은 매 학기 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200만원씩 후원하고 있다. 현재 CPA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회계학 전공교수 7명,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김민수(08), 김병호(09), 김아라(10)학생이 그 혜택의 기쁨을 누렸다.

2013학년도 2학기 성적 우등 장학생 선발

학년별 전체학기 성적순 선발



[성적우수 장학금 수혜자 명단]

고병찬(08) 구종현(08) 김다예(11) 김승은(11) 김윤경(08) 김정환(12) 김한솔(08) 김혜진(12) 나인성(11) 박성연(13) 박여경(09) 백대열(11) 손정민(10) 어지환(09) 오승현(09) 오주현(10) 오현지(11) 원다인(07) 유주안(11) 윤석준(13) 윤혜린(12) 이금선(10) 이승은(11) 이연우(09) 이유경(11) 이유진(10) 이은우(13) 이종욱(09) 이종원(09) 이준엽(11) 이채영(13) 정석운(13) 조영민(13) 주나현(13) 최소민(12) 최소연(12) 최장원(09) 하성훈(09) 한준희(11) 홍상원(12) 홍지혜(10)

지난 4월 30일(수), 경영대학 학장실에서 2013 학년도 성적 우등 장학생 장학증서 전달식이 있었다. 이번에는 고병찬(08)군을 포함한 총 21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었고 이들에게는 1년간 학비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유전공학부 학생 대상 2014학년도

1학기 경영대학 교수와의 간담회 개최



경영대학 김병도 학장의 인사말을 경청하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

지난 5월 13일(화), SK경영관 432호에서 자유전공학부 학생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대 교수와의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경영대학은 매 학기 경영학을 주전공으로 선택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참석률이 매회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날 참석한 김용모(11) 학생은 "수업 외에는 교수님들과 친분을 쌓을 기회가 없었는데,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 대한 경영대 교수님들의 관심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고, 조아름(11) 학생은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경영대학의 인식이 긍정적 인지 궁금했었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영대의 입장과 교수님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목소리도 귀기울여 주셔서 감사했다"고 전했다.

경영대학 <나눔> 프로젝트 3차 지원 동아리 선발

『경영극회』, 『뮤즈』가 선발되어 각각 100만원씩 추가 지원 받게 돼



지난 7월 10일(목), 경영대 59동(LG관) 120호에서 나눔 프로젝트 결과발표회가 있었다. 지난 1월 2차 발표에 이어 그간 활동했던 내용에

대한 발표를 듣고 3차 지원 대상 동아리를 선발하여 추가 지원하는 자리였다. 심시일반(기부 활성화 프로젝트), 경영극회(초등학교 연극 수업), TNT(고등학생 테니스 멘토링), 뮤즈(영유아 복지관 연주회)가 각각 활동 내용을 발표했으며,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조동성 명예교수, 박진수 교수, 정정규 교학팀장의 고심끝에 최종 경영극회와 뮤즈가 추가 지원대상 동아리로 선발되었다.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과 환원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나눔> 프로젝트는 조동성 명예교수의 기금으로 진행되고 있다.

벤처경영학 연합전공 2학기 진입 학생 선발

학내 총 26개 학과 학생 지원 총 21명 선발



벤처경영학 연합전공 설명회 전경(2014.7.24)

2013년 12월에 신설하여, 지난 1학기에 첫 전공진입학생을 선발한 벤처경영학 연합전공이 2학기 전공진입 학생 선발을 완료했다. 벤처경영학 2학기 전공 진입생은 1단계 서류심사 및

2단계 면접을 걸쳐 총 21명을 선발했으며, 학내 총 26개 학과에서 창업에 준비 중이거나,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지원했다. 이번선발은 지난 1학기에 비해 지원 학생이 약 1.9배 증가했으며, 지원자 학과도 학내 전반으로 넓혀졌으며 이는 재학생들의 벤처경영 연합전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벤처경영학 전공진입생들은 필수과목 18학점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핵심교육을 받게 되며, 선택과목 21학점을 통해 연합전공 참여대학에서 제공하는 특화된 창업, 기술창업이 가능한 산업군에 대한 창업교육을 받게 된다.



경영대학 명예교수 초청 오찬

지난 5월 15일 경영대학은 스승의 날을 맞아 명예교수를 위한 오찬 행사를 진행했다. 이는 경영대학이 선·후배 교수 간에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교육·연구 및 대학 발전 도모를 위한 조언 등을 학교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이날 김성기, 김석현, 신유근, 윤석철, 최종태, 한희영 교수 등 총 6명의 명예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김병도 경영대학(원)장을 비롯 15여명의 후배교수가 함께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졸업 소식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서울대학교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8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종합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850명, 석사 989명, 박사 522명으로 총 2,361명이 학위를 받았다. 경영대학은 학사 53명, 석사 18명,

박사 12명, EMBA 1명으로 총 8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특히, 이들 중에서 서상훈(학사, 09), 조상훈(석사, 12), 김영준(박사, 10)씨가 각각 수석 졸업자에 이름을 올렸다. 학사 수석 졸업자 서상훈씨는 “부족한 제가 꿈을 키워나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학교와 모든 소중한 인연들에 무한한 감사함을 느낀다”며 “언제나 서울대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잊지 않고 역경과 불의에 도전해나갈 것”이라고 졸업소감을 밝혔다.

2014학년도 가을학기 입학

경영대학 소속 외국인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경영대학은 지난 8월 29일(금), 58동 231호에서 이번 가을학기에 입학한 경영대학 소속 외국인 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국가별로는 북미 30명, 유럽 50명, 아시아 22명, 오세아니아 6명이며, 북미, 유럽 출신 비율이 74%로 서구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기를 반영하는 수치이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MARIO SCHMIED (University of St. Gallen (스위스))는 서울대학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한국의 최고 대학이라는 명성과 특히 우수한 한국 학생들과 함께 학업 및 캠퍼스 라이프를 같이 할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밝히며, 한류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경영대학은 교환 또는 방문학생 자격으로 입학하여 경영대학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매 학기 맞춤형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경영대학 소개 및 현황, 수강신청 방법, 인터넷 접속, 경영대학 시설, 서울대학교 도서관 및 학생 회관 이용, 각종 학생지원 서비스 내용을 안내 받고 이어지는 환영행사와 Ice Breaking 시간을 즐기며 새로운 캠퍼스 생활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AMP 소식



AMP 제 77기 수료식 개최

AMP 제 77기의 수료식이 지난 8월 20일(수) 오후 6시 SK경영관 수펙스홀(SUPEX HALL)에서 진행되었다. AMP 77기 69명은 2014년 3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6개월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캠퍼스에서 국내 최고 경영자들과 함께 최신 경영이슈와 사례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수료식에는 유근배 기획부총장, 김병도 경영대학장, 김종섭 AMP 총동문회장, 경영대학 교수진 등 많은 내·외빈들이 AMP 77기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였다.



AMP 제 78기 입학식 개최

AMP 제 78기의 입학식은 지난 9월 12일(금) 오후 2시 SK경영관 수펙스홀에서 진행되었다. 김병도 학장은 축사에서 “최고경영자과정에 입학하는 분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학생의 신분을 택한 AMP 78기 교육생 여러분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겸손함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며, “경영대학은 여러분의 이런 열의와 노력에 보답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및 운영에서 최고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입학한 AMP 제 78기 67명은 2014년 9월 12일(금)부터 2015년 2월 11일(수)까지 6개월 동안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캠퍼스에서 국내 최고 경영자들과 함께 교육받게 되며, 10월 말 AMP 멘토링 프로그램 통하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생들과의 교류도 진행될 예정이다.

교수 소식

고봉찬 교수 (외 김진우)의 “액티브펀드의 종목선택능력과 정보처리능력에 대한 검증” 논문이 한국증권학회지 2013년 게재논문 중에서 최우수논문상으로 선정되었다.

박남규 교수 (외 Mezas, J., Lee, J., Han, J.)의 “Reverse knowledge diffusion: Competitive dynamics and the knowledge seeking behavior of Korean high-tech firms.” 논문이 SSCI저널인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에 게재되었다.

박남규 교수 (외 Kim, H., Lee, J.)의 “How does the second-order learning process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inputs and outputs of large Korean firms?” 논문이 SSCI저널인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에 게재되었다.

안중호 교수 (외 Hyunmi Baek, Sehwan Oh)의 “Impact of Tweets on Box Office Revenue: Focusing on When Tweets are Written.” 논문이 SCI저널인 ETRI에 게재되었다.

양홍석 교수 (외 Soojung Oh, Soo Wook Kim)의 “Managerial capabilities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firm performance: role of e-procurement system type” 논문이 생산관리TOP10 이면서 SCI저널인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에 게재되었다.

조승아 교수 (외 Sun Young Sung, Jin Nam Choi)의 “Creative Contribution of Individuals In Groups: Effects of Goal Orientation and Participative Safety” 논문이 SSCI저널인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에 게재되었다.

조재호 교수 (외 Dongwon Lee)의 “Stock Price Reactions to News and the Momentum Effect in the Korean Stock Market” 논문이 SSCI저널인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에 게재되었다.

주우진 교수 (외 Meeja Im, Eun-Ju Lee)의 “Investor Expertise as Mastery over Mind: Regulating Loss Affect for Superior Investment Performance” 논문이 마케팅TOP10 이면서 SSCI저널인 Psychology and Marketing에 게재되었다.

최종학 교수 (외 Woo-Jong Lee)의 “Association between Big 4 auditor choice and cost of equity capital for multiple-segment firms” 논문이 SSCI저널인 Accounting and Finance에 게재되었다.

최진남 교수 (외 Jinseok S. Chun)의 “Members' Needs, Intragroup Conflict, and Group Performance” 논문이 인사관리 TOP5이며 FT45이면서 SSCI저널인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에 게재되었다.

최진남 교수 (외 Sun Young Sung)의 “Do organizations spend wisely on employees? Effects of training and development investments on learning and innovation in organizations” 논문이 인사관리 TOP10이며 SSCI저널인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에 게재되었다.

최진남 교수 (외 Sun Young Sung)의 “Multiple dimension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논문이 인사관리 TOP10이며 SSCI저널인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에 게재되었다.

최진남 교수 (외 Jee Young Seong)의 “Effects of Group-Level Fit on Group Conflict and Performance: The Initiating Role of Leader Positive Affect” 논문이 SSCI저널인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에 게재되었다.

최진남 교수 (외 Sun Young Sung, Tina Kim-Jo)의 “Personality Dissimilarity and Work-Related Outcomes: Asymmetric Effects and Moderating Role of Group Tenure” 논문이 SSCI저널인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에 게재되었다.

최진남 교수 (외 Theresa S. CHO, Sun Young Sung)의 “Creative Contribution of Individuals In Groups: Effects of Goal Orientation and Participative Safety” 논문이 SSCI저널인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에 게재되었다.

발전기금 소식

2014년 상반기 Wall of Honor 명패 교체식 및 S-Honors Club 신규 선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는 1975년 경영대학 설립 이래로 1천만원 이상 발전기금을 출연해주신 분들의 뜻을 높이 기리고 후학에 모범을 보여 학교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 정립을 위해 경영대학 SK 경영관 1층 로비에 Wall of Honor (기부자 기념벽)을 설치하고, 매 학기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26일에 진행된 명패 교체식은 S-Honors Club 신규선정자를 대상으로 게시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참나무클럽: (주)삼익악기
소나무클럽: 장사범 (학사 84), AMP 76기, EMBA 4기

Wall of Honor는 느티나무(10억이상), 참나무(1억이상), 소나무(1천만원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경영대학의 비전을 뜻하는 나무의 이름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느티나무 클럽은 사회적 책임, 참나무클럽은 도전과 용기, 소나무 클럽은 창의를 의미한다.

후배를 향한 내리사랑 - 84 장학기금 장학생 선발

지난 2013년 12월부터 기금 모금 활동을 한 84장학기금의 수혜 학생을 지난 9월 26일 선발했다. 84장학기금은 올해 졸업 30주년 홈커밍데이를 기념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지난 8월 20일까지 25명의 동문이 참여하여 총 5천 5백만원의 모금했다. 이번 84장학기금은 기존의 가계곤란 장학금이나, 성적우수 장학금과는 달리 학비 보조금 지원 외에, 학생의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금전적인 가치보다 더 소중한 시간과 애정을 후배에게 쏟는 84장학기금은 장학금 전달을 뛰어넘어 30년 인생의 선배가 후배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고, 후배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프로그램이 될 전망이다. 선발된 학생은 졸업까지 매월 50만원이 지원되며, 멘토링을 통해 84학번 선배와의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게 된다.

(주)삼익악기, 경영대학에 학술기금 5억원 출연



samick

지난 4월 17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정기총회 및 제 14회 자랑스러운 교수상 시상식에서 삼익악기 김종섭회장(AMP 총동창회장, AMP 337기)이 경영대학에 5억원을 출연했다. 삼익악기 김종섭 회장은 2012년부터 서울대 경영대학에 기금 출연의사를 표현한 바 있으며, 이번 "삼익악기 기금"은 국내 최고의 경영학 지식 중추 센터로서, 기업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경영연구와 세계수준의 연구지원에 사용 될 예정이다.

경영대학 발전기금소식

경영대학 발전기금 출연안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실 (02-880-8931)
경영대학 홈페이지 <http://cba.snu.ac.kr>

동창회 소식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총동창회 | (재)서울상대 향상장학회
2014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 전달식



지난 8월 29일(금) 낮 12시,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2014 제2학기 장학금 전달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정형배(22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참석한 기부자와 모교교수, 동창회 임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었으며, 모교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급과 장학금전달식이 이어졌다. 학술연구비는 경영대학과 경제학부 대표로 참석한 이경목(40회) 경영대 교무부학과장 김재영 경제학부장에게 각각 천만원씩이 전달되었으며, 장학금으로 경영학과 40명, 경제학부 37명의 학생에게 189,959,000원이 지급되었다.

AMP 총동창회 소식



2014년도 정기총회 및 제14회 '자랑스러운 교수상' 시상식 개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AMP) 총동창회에서는 2014년도 정기총회 및 제14회 '자랑스러운 교수상' 시상식을 4월 17일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에서 진행했다. 이날 '산업환경 및 트렌드 변화와 미래 성장유망분야'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안중호 교수는 제 14회 자랑스러운 교수상을 수상했다.

EMBA 동문 소식



EMBA 총동문회 개최

EMBA 총동문회가 7월 3일 저녁 7시, 강남 리베라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난 2월에 졸업한 EMBA 4기들의 총동문회 가입 축하를 겸한 자리로 마련된 동행사에서 총동문회장인 정경원 한국 시스코 대표이사는 축하를 통해 새롭게 동문회에 가입한 EMBA 4기 동문들을 환영하였으며 행사에 참석한 모든 EMBA 동문들은 각자 소속된 회사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통해 학교와 EMBA 총동문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였다.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다음은 지난 2014.03.12 ~ 2014.09.11까지 우리 대학에 기부해 주신 내용이다.	
1000만원 이상	
(주)삼익악기	500,000,000
AMP 76기 일동	53,720,000
AMP 77기 일동	53,720,000
한국공항공사	20,000,000
서울상대향상장학회	10,000,000
100만원 이상	
장사범 (경영 학사84)	9,000,000
(주)리브로	6,919,590
김영윤	5,000,000
송재용 (경영 학사83, 석사87)	5,000,000(1,000만원 약정)
(주)와이비엠시스	5,000,000
서동규 (경영 학사84, 석사91)	3,000,000
이재호 (경영 학사84, 석사88)	3,000,000
최혜영	3,000,000
후원자00026	2,499,990(5,000만원 약정)
김종훈 (경영 학사92, 석사96)	2,000,000(1,000만원 약정)
위건 (경영 SNUMBA 08)	2,000,000
김도영 (경영 G MBA 06)	1,000,000
서문기 (경영 학사84, 석사88)	1,000,000
송중호 (경영 학사84, 석사88)	1,000,000
임일 (경영 학사84, 석사88)	1,000,000
최정욱 (경영 학사84, 석사88)	1,000,000
홍주완 (경영 학사84)	1,000,000
후원자00384	1,000,000
10만원 이상	
양희동 (경영 학사84, 석사88)	600,000(100만원 약정)
차재연 (경영 학사84, 석사89)	600,000(120만원 약정)
김성천 (경영 학사84)	500,000
김영희	500,000
이대건 (경영 학사03)	500,000
이현승 (경영 학사84)	500,000
노원중 (경영 학사96)	300,000(1200만원 약정)
이용규 (경영 학사84)	300,000
이용규 (경영 학사84)	200,000(100만원 약정)
이훈근 (경영 학사70, 석사76)	200,000
이상목 (경영 학사06)	180,000(36만원 약정)
김창원 (경영 학사97)	100,000(100만원 약정)
유경연 (경영 학사 95)	100,000(100 만원 약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나의 산 이야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영진

아직도 나는 내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다는 킬리만자로 정상을 다녀 왔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평생 오른 산중에 가장 높은 곳을 올랐다는 성취감과 함께 친근한 직장 동료들과 같이 보낸 즐거운 시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다. 주위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다들 부러워한다. 이렇게 높은 산을 다녀오니 우리 경영대학 내에서도 내가 등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하자면 나는 지금까지 바위를 타본 적이 한번도 없고, 가까우면서도 대표적인 바위산인 인수봉은 무서워서 여태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난 그저 산행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시간 있을 때마다 학교 뒤 관악산을 오르곤 했을 뿐이다.

내가 언제부터 산에 다니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니 아마 대학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다. 학생시절로 인하여 휴학이 잦았던 대학시절에 당시 상과대학 산악반 동아리 선배들을 따라 설악산, 지리산, 치악산을 올랐던 기억이 난다. 장비도 없이 허름한 배낭과 군화를 구해 따라다니던 시절이니 결코 산에 대한 애착이 있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 볼 수 없었다. 대학졸업후 미국에서 지내던 10년 동안에는 심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지 산에 오를

기억은 거의 없다. 여유가 좀 있었더라도 내가 머물던 곳에선 우리나라와 같이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이 없기 때문에 산행이 더 어려웠는지 도 모른다.

1982년에 서울대학교에 부임한 후, 나는 단지 운동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대 쪽에서 관악산에 오르내리곤 했다. 당시에는 관악산도 입장료를 받았기 때문에, 공대 쪽으로 나 있는 쪽문을 통해 등반하는 것이 서울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일종의 특권(?)이었다. 요즘과 달리 서울대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거의 이용되지 않던 시절이라서, 오후 늦게 산에 오를 때면 관악산 전체가 내 집 뒷마당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관악산 이외에 정기적인 산행 중 기억에 남는 것은 학생들과 1986년부터 여러 해 동안 매년 4월 중순에 즐기는 덕유산 종주(남덕유-향적봉 코스)이다. 동료교수들, 그리고 대학원학생들과 같이 매년 덕유산을 종주하면서 산에 오르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나누곤 하였다. 특히 입산금지 기간이던 4월에 특별 산행 허가를 받아 가는 덕유산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였다. 4월 중순인데도 음지에 남아있는 잔설, 조금씩 짙어 내는 야생난들, 능선 길을 덮고 있는 낮은 산죽 군락 등은 덕유산 산행을 더 즐겁게 해 주었다. 묘사도 그때 같이 덕유산에 갔던 교수들과 학생들을 만나면 그때의 추억과 에피소드로 시간가는 것을 잊곤 한다.

그러던 중 1997년에 해외에서 처음으로 산행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교환교수로 미국 서부에 있는 대학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텐버에 살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록키산맥의 높은 봉우리들을 같이 오르자는 제의가 왔다. 덕분에 국립공원 내에 텐트를 쳐 놓고 사흘 동안 4000m 정도의 봉우리를 매일 오르내렸는데, 여태 오른던 산보다 크고 높아서인지 그간 느끼지 못하던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 지인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과 에베레스트산으로 가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추진하고 있으니 합류하겠냐고 제안을 해왔다. 한 달이라는 긴 기간을 산행에 할애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나로서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고민하다가 합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 고산트레

킹을 통해 또 다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다. 평생 처음 높고 신비로운 설산을 대하고는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고 느꼈고, 현지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사람이 좋은 삶을 유지하는데 결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내가 걱정한 것 보다 내 자신이 환경의 변화에 매우 잘 적응할 수 있었다는 것, 따라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느낀 점 등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알고 지나왔던 사실들을 더욱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주로 평일 오후에 관악산만 오르내리곤 하던 차에 서울대학교 교수산악회가 발족되었다. 교수산악회의 첫 산행에 참석하고 나서 바로 느낀 점은 회장님을 위시하여 이 모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회원들이 너무 좋고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이라는 점이었다. 임원들 중에는 고등학교시절부터 산악부에서 활동하여 산에 관한 한 내로라하는 베테랑들이 많이 계셔서 가까운 관악산을 즐기던 나로서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경영대학에 재무분야를 전공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산악회의 감사를 맡기도 했다.

그러던 차에 교수산악회의 제 1차 해외등반으로 고 박영석 대장의 인솔하에 K2 베이스캠프에 등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감사 직을 맡고 있어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 계약금은 지불한 뒤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고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이던 중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같이 치자고 초청하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라는 동료교수들의 권유에 결국은 산행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 트레킹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산악인인 박영석 대장과 오희준 대원, 그리고 다수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악인들과 같이 산행을 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그 의미를 충분히 찾을 수가 있었다. 거기다가 힘든 산행을 함께한 여러 교수님들과 보낸 순간 순간의 추억들 또한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K2 산행 이후에 교수산악회에서 주최한 장기산행에도 처음에는 우유부단한 행동을 보이다가 결국 참여하곤 하였다. 킬리만자로 산행도 예외는 아니었다. 산악회에서 처음 킬리만자

로 등정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나는 선향가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정상이 6000미터에 가깝다는 사실에 우선 주눅이 들었고, 또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주위의 의견 때문에 선향 결정을 못하고 있었다. 여러 사정상 고산 등정을 위한 두 번의 예비 훈련에도 빠지게 되어, 더욱더 자신이 없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결국 이 산행에도 동참하게 되었고 동료 교수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정말 어렵게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다. 서울을 떠나서 산행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비행기 여행, 새로운 대륙에 왔다는 가벼운 흥분 등 등반이전의 생활은 약간은 상기되고 매우 즐거웠으나, 항상 다른 장기산행 때도 그랬듯이 막상 산행을 시작하면서 따라온 결정이 후회가 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단체의 움직임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다. 여느 장기산행 때와 마찬가지로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 간다고 할까 하는 생각도 없진 않았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젓 먹던 힘까지 내어 낙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운 좋게 내 생애에 가장 높은 곳을 오를 수 있었다.

요즘 들어 나는 가끔 생각해 본다. 왜 내가 지금까지 교수산악회가 주최한 10번의 해외 장기산행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참여하게 되었는지! 산에 대한 열정이 동료회원들에 비하면 그리 강렬하지 않은 내가 장기산행에 계속 참가하였다는 사실이 내 스스로도 잘 믿기지 않는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늘어난 생활방식에 일종의 변화를 주는 측면에서 장기산행이 필요할 수 있다. 또 잡다한 현실에서 떠나 높은 산속에서 일상의 삶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일 수도 있으며, 누구처럼 그냥 산이 좋아서 간다고도 할 수 있다. 산행에 대한 여러 이유 중에서 한가지만을 꼭 집어서 나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나에게 장기산행에 관한 확실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닥아나나 교수산악회에 참여하여 친근해진 분들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같이 자고 먹고 느끼며 고생하는 순간 서로 격려해 주는 것 때문에 장기산행 계획이 나오면 나는 또 망설이다가도 매번 다시 어디라도 함께 산행을 따라 나서게 될 것 같다.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

—콩도르세의 역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안상형

민주주의(Democracy)는 그리스어 Demos(시민)과 Kratia(권력)의 결합어인 Democratia가 어원으로 시민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지배'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시민에 의한 지배는 투표를 통해 표출된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다수결 의사결정으로 중요한 정책 사안을 합의하는 것이다. 즉, 다수결 의사결정이 민주주의의 기본 골격이며 원칙이다.

다수결 의사결정이라는 민주적 선거제도가 반드시 합리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못할 때가 있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살펴보자.

갑, 을, 병 세 명의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의한 세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유권자의 처음 1/3은 갑>을>병 순이며, 다른 1/3은 을>병>갑 순이며, 나머지 1/3은 병>갑>을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양자 대결을 하는 경우 세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는 다음과 같다. '갑과 을의 양자대결'에서는 유권자의 2/3는 '갑'을 선호하고 '을과 병의 양자대결'에서는 유권자의 2/3가

'을'을 선호하고, '병과 갑'의 양자대결에서는 유권자의 2/3가 '병'을 선호한다.

갑을 을 이기고, 을은 병을 이기고, 병은 을을 이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것은 셋 이상의 대안과 세 명 이상의 투표자가 있는 선거의 경우 대안을 두 개씩 묶어 투표하는 양자대결에서 모든 대안을 물리치는 대안이 없을 수 있음을 뜻한다. 즉, 투표를 통해 명백한 승자를 정하지 못하는 모순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이라 한다. 이를 처음 발견한 18세기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수학자였던 콩도르세(Condorcet; 1743 ~ 1794)의 이름을 따서 콩도르세의 역설(Condorcet's Paradox)이라고도 한다.

투표의 역설은 관계의 비전이성(non-transitivity of relations)을 보여주는 유명한 예제이다. 전이성(transitivity)이란 개념은 '보다 더 좋은', '보다 더 큰' 등의 관계에 적용된다. '보다 더 좋은' 관계를 예로 들면, A를 B보다 더 좋아하고(A>B), B를 C보다 더 좋아하면(B>C) 자동적으로 A를 C보다 더 좋아하는(A>C) 관계가 성립하면 이 관계는 전이성이 있

다고 말한다. 콩도르세의 파라독스는 "무엇을 더 좋아한다."는 말로 표현되는 관계는 반드시 전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위의 예제에서 유권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전체로 보면 갑은 을을 이기고, 을은 병을 이기며, 병은 갑을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 양자대결에서는 세 후보 모두가 2/3의 확률로 자신이 이긴다고 주장하게 되므로, 스스로 사퇴할 후보는 없다. 결국 세 후보 모두 출마하고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치열한 혼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투표의 결과는 33%대의 저조한 득표율로 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이다. 이 사례는 단순 다수결의 경우 가장 민주적으로 선거를 치른다 해도 유권자의 2/3가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다수결 결정이라는 공정한 투표를 통해서도 공정한 사회적 총합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그야말로 민주적 선거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성공적 경영혁신을 위한 전제 조건: IT-Dumb Leader에서 IT-Smart Leader 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노상규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다. 정부, 솔루션 벤더, 학회, 대학, 기업, 언론에 이르기까지 관련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빅데이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빅데이터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도 크고 결국은 다른 IT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기업의 IT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험은 당황, 황당, 실망, 경악 등으로 묘사되지 않을까 싶다. 기업의 많은 IT 프로젝트들이 예산은 초과되고, 목표기한은 훌쩍 넘기고,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일부 조사에 의하면 IT 프로젝트의 30% 정도만이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andish Group, Chaos Summary, 2010]. 특히 IT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론이 쏟아져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성공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의아하게 만든다.



2000년에서 2008년까지 IT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출처: <http://standishgroup.com>)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일부에서는 IT 부서의 무능을 탓하기도 한다. CIO 출신 경영컨설턴트인 Susan Cramm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IT 부서를 미워하는 이유 8가지를 정리한 블로그 포스트를 써서 비즈니스 리더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물론 IT 리더로부터는 호된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이를 기반으로 책 [Susan Cramm, 8 Things We Hate about IT, HBS Press, 2010]을 쓰기도 하였다. 이 중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T 부서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 IT 부서는 말이 안 통하는 컴퓨터광으로 가득차 있다.
- IT 부서는 돈 먹는 하마이다.
- IT 부서는 알아서 하지 않고 시켜야 한다.
- IT 프로젝트는 도대체 끝나지가 않는다.
- IT 부서는 도대체 비즈니스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

- IT 부서는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한다.
 - IT 부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적이 없다.
- 이런 목록을 보면 비즈니스 부서의 IT 부서에 대한 불신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런 불신은 대부분 IT 부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다. 물론 IT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이유가 IT 부서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CEO 또는 비즈니스 리더/담당자들이 IT 프로젝트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IT-dumb) 있는 것이다. 비즈니스 부서에서 IT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오해 4가지는 다음과 같다.
- 정보시스템 구축은 IT 부서의 일이다.
 -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IT 솔루션을 선택하면 쉽게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IT 부서는 비즈니스를 잘 이해 못하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준다.
 - IT 부서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항상 바빠서 비즈니스 혁신에 장애가 된다.

첫번째 오해: 정보시스템 구축은 IT 부서의 일이다.

IT 투자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IT 프로젝트가 IT 부서의 일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 실질적으로도 기업의 5~10% 정도만이 IT 프로젝트 성패의 책임을 비즈니스 리더가 진다고 한다. 이는 IT 프로젝트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한다.

IT 프로젝트는 이름과는 달리 IT를 기반으로 기업의 제품/서비스, 프로세스, 시장을 변화시키는 프로젝트이다. 즉 IT를 기반으로 하는 경영혁신이다. IT 부서가 경영혁신을 잘 이끌 것이라 생각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경영자의 책임회피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유행하는 빅데이터 분석의 경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좁게는 경영의사결정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넓게는 비즈니스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어떤 것이 중요한 의사결정인지, 어떻게 비즈니스 방식을 바꿀 것인지를 IT 부서나 컨설턴트에게만 맡겨 놓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

결론적으로 IT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필요조건은 경영자, 비즈니스 리더, 업무 담당자들이 "IT 프로젝트가 내 일이자 내 책임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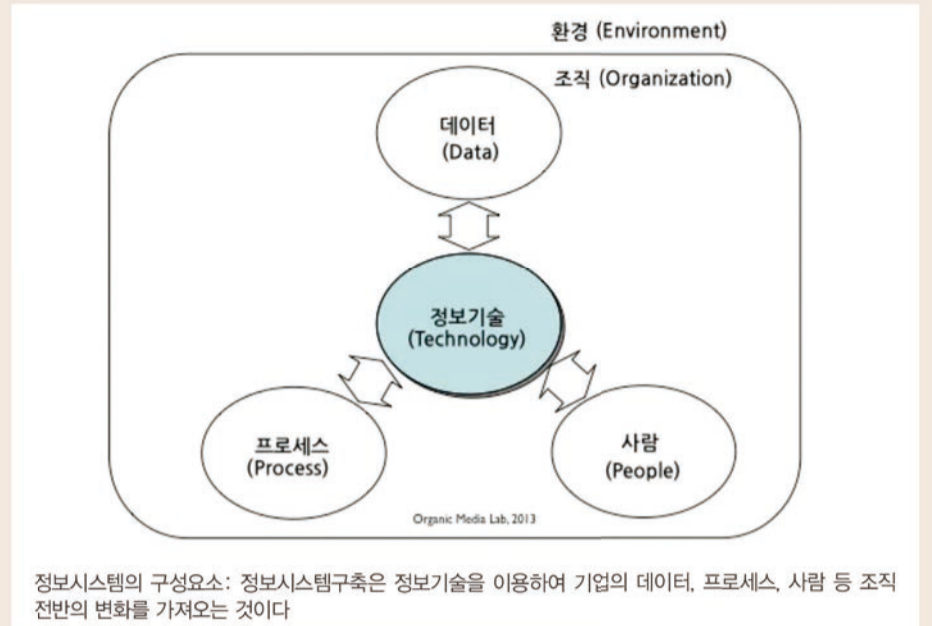
두번째 오해: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IT 솔루션을 선택하면 쉽게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많은 경영자들이 ERP, CRM, SCM 등의 IT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제대로 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구입하면 비즈니스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IT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의 범위 및 규모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스마트폰을 구매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활이 저절로 스마트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개인이 제대로 스마트해지기 위해서는 사고방식, 생활양식, 정보관리방식 등이 변해야 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IT 프로젝트는 조직내외로 기술의 변화 뿐 아니라 프로세스, 데이터, 사람, 가치, 문화, 등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도입하는 기술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없이, 특히 기업의 프로세스, 데이터, 사람,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시작된 IT 프로젝트는 실패할 운명을 띄고 태어났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런 범위와 규모의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많은 관심, 노력 및 투자가 필요할 뿐 아니라 비즈니스 부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변화의지가 필수적이다.

세번째 오해: IT 부서는 비즈니스를 잘 이해 못하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준다.

IT 프로젝트에서 비즈니스 리더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IT 부서는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비즈니스에서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IT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IT 부서의 가장 큰 불만은 "비즈니스부서에서 제대로 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요구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근본적으로는 비즈니스 부서와 IT 부서의 지식, 문화, 업무의 갭에서 오는 것이지만 단순화 시키자면 비즈니스 리더들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것이 많은 시간과 노력, 상세함(Detail)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부하직원에게 사장님의 결재를 받아오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자(물론 요즘에는 대부분 전자결재를 하기때문에 직접 결재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설명의 편의상 선택했다). 비즈니스 부서의 입장에서 아주 단순한 프로세스이다. 부하직원에게 '사장님께 결재 받아와'하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IT 부서 입장에서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만약에 사장님이 회의 중이면? 그냥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회의가 끝날때 까지 기다릴 것인지? 회의가 금방 끝나지 않고 길어진다면? 회의가 끝나자마자 외출한다면? 똑똑한 부하라면 회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바로 돌아와 나중에 결재를 받으러 갈 것이다. 하지만 회의가 길어진다는 것은 5분이 넘는 것인가, 아니면 30분이 넘는 것인가? 이와 같이 IT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이를 적절하게 시스템에 반영하려면 비즈니스 부서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업무프로세스를 어떻게 개편화 할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전자결재를 기존 종이문서에 기반한 결재로 개편화할 것인지(학교의 전자결재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어 불편하기 짝이 없다). 그룹 의사결정으로 개편화 할 것인지는 정보시스템의 구축과정이나 효과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은 IT 부서나 컨설턴트들이 힌트는 줄 수 있을지언정 이를 완성하는 것은 비즈니스 부서의 몫이고 이러한 개념화의 완성인 한 번만에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IT 부서에서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위해 회의를 요청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요구사항을 전달하지 못하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을 보내 놓고, 구축이 완료된 후에 원하는 대로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았다고 불평을 늘어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IT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부서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를 투입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네번째 오해: IT 부서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항상 바빠서 비즈니스 혁신에 장애가 된다.

비즈니스 리더들이 IT 부서에 가지는 또 하나의 불만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오고 설사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로 해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자꾸 프로젝트의 시작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일리가 있는 불만이다. 하지만 IT 부서에서는 "비즈니스부서에서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고려도 없이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우리는 밤새워가며 일하고 욕만 먹는다"는 불만을 털어 놓는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대부분의 비즈니스 부서에서는 IT 부서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 IT 부서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뿐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 운영 그리고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인프라 및 표준 구축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IT예산의 70%가 기존 시스템 운영, 아키텍처/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된다고 한다 [Weill and Ross, IT Savvy, HBS Press, 2009]. 따라서 IT 부서 입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보안문제, 데이터 정합성(data integrity) 문제, 프로세스 표준화 문제, 기존 시스템 및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더 이상 IT 부서를 하청업체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상생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우선 IT 부서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IT 부서를 비즈니스 혁신의 파트너로 만들어야 한다. IT 부서가 처한 입장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솔루션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다.

물론 IT 부서 또는 SI업체 인력의 능력과 비즈니스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IT 프로젝트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CEO, 비즈니스 리더, 업무 담당자 등 비즈니스 부서 구성원의 IT 프로젝트 본질에 대한 이해, (새로운) 정보기술과 이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단한 배움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포함한 IT 프로젝트들의 예산은 초과되고, 목표기한은 훌쩍 넘기고, 기대효과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IT의 발전으로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리더들이 더 이상 IT-dumb 리더가 아니라 IT-smart 리더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IT-smart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체계적인 교육과 Business-smart한 IT 리더들과의 소통을 통해 조금씩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다. 이 글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IT-smart 해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바란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부동문													
강남석 (96)	김광성 (73)	김신 (75)	김지정 (99)	문대원 (71)	박철웅 (78)	송기호 (90)	오엽록 (81)	이기복 (93)	이원 (83)	이현승 (84)	정승원 (97)	조현탁 (83)	하용이 (73)
강동석 (85)	김광일 (83)	김열중 (77)	김진태 (88)	문보성 (95)	박태규 (92)	송용 (87)	오윤택 (75)	이기봉 (83)	이원하 (96)	이현우 (92)	정승환 (83)	조형태 (97)	하정협 (98)
강동수 (97)	김광일 (84)	김영대 (90)	김진현 (84)	민경인 (96)	박태성 (87)	송인준 (85)	오재권 (75)	이남주 (95)	이유진 (88)	이현철 (83)	정영재 (82)	주대현 (91)	하정주 (84)
강성원 (66)	김광집 (83)	김영민 (98)	김창래 (88)	민대환 (75)	박학규 (82)	송재익 (94)	오정규 (94)	이대건 (03)	이윤 (87)	이형오 (82)	정욱희 (82)	주성도 (75)	하태형 (78)
강승만 (05)	김광호 (85)	김영봉 (84)	김창원 (97)	민보현 (97)	박해용 (96)	송종호 (84)	오정림 (97)	이대성 (83)	이응상 (83)	이호석 (02)	정용재 (83)	주용훈 (97)	한갑희 (78)
강연재 (75)	김규완 (06)	김영삼 (87)	김철원 (93)	민승기 (74)	박현정 (97)	송하동 (83)	오창석 (82)	이덕준 (83)	이재국 (59)	이홍근 (70)	정우창 (85)	주정일 (84)	한규영 (95)
강옥구 (98)	김근중 (87)	김영일 (82)	김춘현 (86)	민재윤 (98)	박형근 (98)	신기천 (81)	옥성환 (92)	이덕훈 (89)	이재영 (74)	이환인 (83)	정욱재 (91)	지성배 (86)	한상무 (89)
강윤석 (88)	김기동 (83)	김영필 (00)	김치근 (83)	민현동 (71)	박형봉 (86)	신상철 (86)	원효성 (95)	이동근 (82)	이재원 (01)	임일 (84)	정원용 (83)	지창수 (55)	한상철 (86)
강인수 (87)	김기록 (00)	김완석 (97)	김태근 (82)	박경진 (03)	박희석 (84)	신영욱 (82)	우두현 (61)	이동훈 (87)	이재원 (55)	임지산 (93)	정은혜 (00)	진승환 (90)	한승수 (82)
강정영 (98)	김나연 (01)	김완희 (83)	김태오 (70)	박광재 (83)	배성환 (99)	신용삼 (73)	우승백 (95)	이동훈 (95)	이재일 (73)	임진환 (83)	정일용 (95)	차경민 (91)	한정록 (76)
강정훈 (98)	김남근 (89)	김용범 (93)	김해권 (97)	박기태 (85)	배수일 (83)	신용항 (96)	우영기 (97)	이만열 (82)	이재호 (84)	임형주 (92)	정정한 (94)	차세영 (95)	한정택 (98)
강중구 (82)	김남훈 (96)	김용완 (87)	김혁 (87)	박기형 (83)	배영호 (78)	신진영 (01)	원재연 (82)	이명규 (83)	이재호 (99)	임환범 (02)	정찬수 (82)	차재연 (84)	한종철 (79)
강창호 (85)	김대열 (95)	김용은 (83)	김현두 (94)	박래수 (84)	배윤정 (03)	신현철 (97)	원효성 (79)	이명철 (71)	이재훈 (98)	장경준 (74)	정창모 (81)	천상훈 (89)	한준석 (76)
강희천 (88)	김도연 (98)	김용원 (81)	김형태 (95)	박부영 (96)	배화주 (83)	신화균 (89)	유경석 (96)	이문희 (82)	이정규 (99)	장무호 (98)	정태천 (86)	최광해 (82)	한학주 (97)
고석준 (93)	김동성 (92)	김용철 (83)	김홍섭 (79)	박상규 (83)	백동관 (78)	심성보 (82)	유경연 (95)	이민석 (82)	이정원 (84)	장보훈 (83)	정하용 (65)	최기업 (82)	한형진 (97)
고성재 (96)	김동필 (85)	김우택 (83)	김희석 (95)	박성우 (83)	백우현 (74)	심수아 (88)	유기석 (85)	이봉주 (98)	이정인 (83)	장사범 (84)	정한 (97)	최동수 (65)	한홍식 (86)
고성현 (79)	김동희 (88)	김유주 (87)	김후성 (99)	박성민 (96)	백창기 (76)	심정현 (96)	유병준 (90)	이상목 (06)	이정훈 (88)	장석우 (99)	정한성 (70)	최동진 (99)	함기창 (57)
고승현 (85)	김두만 (59)	김윤경 (99)	김희재 (98)	박영관 (04)	서대윤 (62)	심현석 (96)	유상문 (99)	이상민 (90)	이정희 (79)	장선택 (86)	정화동 (76)	최병노 (83)	함병하 (58)
고재희 (93)	김란국 (99)	김은정 (97)	나성민 (97)	박용이 (57)	서동규 (84)	심호식 (97)	유석렬 (70)	이상중 (95)	이종철 (78)	장영철 (76)	제갈정웅 (65)	최병희 (95)	허석영 (83)
고현실 (98)	김만춘 (96)	김의성 (84)	나성찬 (86)	박용진 (85)	서문기 (84)	안경태 (71)	유영민 (01)	이석규 (83)	이주세 (83)	장영호 (93)	재원용 (98)	최선화 (97)	허은영 (99)
고희강 (98)	김명관 (82)	김이환 (93)	나형균 (86)	박용환 (72)	서승욱 (96)	안계환 (82)	유정민 (96)	이석훈 (99)	이주영 (00)	장인근 (84)	조경목 (82)	최성범 (78)	허중 (69)
곽기용 (90)	김명현 (87)	김익철 (91)	남기천 (91)	박인근 (91)	서영식 (98)	안민희 (94)	유정호 (98)	이선민 (97)	이준기 (86)	장종현 (78)	조길현 (91)	최승환 (82)	한광진 (83)
곽병진 (84)	김범수 (86)	김인수 (83)	남수현 (87)	박재혁 (86)	서원일 (96)	안성철 (83)	유진무 (62)	이세용 (83)	이준기 (00)	장진국 (00)	조명현 (83)	최승훈 (89)	홍기수 (89)
곽윤구 (92)	김범준 (92)	김일섭 (64)	남연우 (83)	박정래 (72)	서정수 (87)	안영균 (78)	유희찬 (80)	이승렬 (02)	이준엽 (00)	전광 (76)	조민식 (86)	최연식 (97)	홍명주 (98)
구경철 (81)	김병욱 (83)	김자영 (00)	남영호 (75)	박정선 (89)	서종현 (95)	안종범 (73)	윤성복 (69)	이승은 (03)	이준우 (96)	전규안 (85)	조민재 (86)	최욱경 (84)	홍순호 (62)
구본준 (97)	김복균 (98)	김재일 (81)	남우석 (97)	박종선 (99)	서진식 (88)	안홍환 (80)	윤여진 (97)	이승철 (93)	이준원 (92)	전기환 (83)	조성권 (00)	최원석 (88)	홍승환 (95)
구양훈 (92)	김봉경 (92)	김재중 (00)	남욱 (82)	박종식 (96)	남옥 (82)	양선업 (77)	이승규 (97)	이승호 (82)	이준호 (97)	조성용 (85)	조영진 (87)	최유하 (83)	홍용진 (87)
국기호 (79)	김상노 (93)	김재현 (82)	남중수 (75)	박종우 (94)	석훈 (01)	양성현 (94)	윤영기 (83)	이승호 (88)	이지신 (84)	전용배 (82)	조영기 (02)	최은옥 (86)	홍우선 (80)
권민정 (00)	김상민 (94)	김재환 (92)	노기팔 (86)	박종원 (83)	선병오 (95)	양승우 (68)	윤장희 (83)	이승호 (92)	이지원 (99)	전익수 (83)	조영은 (01)	최정국 (84)	홍정범 (82)
권성환 (99)	김상형 (99)	김정명 (98)	노상규 (83)	박주현 (98)	선우희연 (99)	양시형 (92)	윤재봉 (73)	이승훈 (04)	이진방 (67)	전홍 (83)	조영창 (97)	최종호 (82)	홍주완 (84)
권순만 (83)	김상훈 (95)	김정은 (99)	노석균 (83)	박준영 (91)	성태호 (95)	양안수 (97)	윤재철 (66)	이영상 (59)	이진욱 (92)	정기영 (67)	조용근 (98)	최주호 (84)	홍준기 (91)
권승수 (75)	김선업 (88)	김종규 (93)	노원중 (96)	박준현 (94)	성태홍 (83)	양일근 (85)	윤종현 (82)	이영서 (61)	이준호 (74)	정건해 (65)	조용해 (69)	최준희 (91)	황건호 (70)
권주팔 (86)	김성권 (99)	김종성 (64)	노종현 (98)	박지은 (98)	손병욱 (98)	양희동 (84)	윤지현 (91)	이영웅 (78)	이창환 (74)	정경수 (91)	조원용 (97)	최지희 (97)	황성엽 (82)
권혁재 (79)	김성규 (89)	김종우 (83)	류경표 (83)	박지현 (88)	손영백 (94)	여경석 (91)	윤현철 (78)	이영재 (97)	이창훈 (81)	정국원 (99)	조원홍 (83)	최진아 (85)	황성택 (86)
김갑순 (88)	김성기 (90)	김종한 (92)	류승동 (82)	박지혜 (01)	손영진 (81)	엄정근 (84)	윤훈수 (83)	이왕상 (92)	이철영 (63)	정기철 (97)	조윤제 (98)	최진혁 (96)	황수연 (72)
김건우 (93)	김성남 (83)	김종훈 (92)	류인 (79)	박진영 (82)	손영진 (82)	오기원 (83)	이강민 (95)	이왕갑 (83)	이철주 (59)	정명훈 (93)	조인하 (83)	최창목 (82)	황영선 (82)
김경배 (82)	김성열 (57)	김준원 (95)	류재욱 (87)	박찬용 (86)	손은석 (91)	오동렬 (99)	이강민 (95)	이왕갑 (84)	이준호 (83)	정민수 (93)	조재민 (74)	최창윤 (96)	황윤재 (98)
김경철 (90)	김성천 (84)	김준철 (83)	류종윤 (82)	박찬호 (83)	손종현 (94)	오상록 (09)	이경준 (97)	이용규 (84)	이태영 (78)	정병규 (83)	조정훈 (97)	최현정 (88)	황인찬 (92)
김광 (83)	김성철 (83)	김준형 (93)	류현석 (98)	박창길 (66)	손준원 (94)	오선영 (83)	이국진 (77)	이용범 (97)	이태호 (92)	정병환 (95)	조진제 (05)	최혜진 (99)	황학연 (89)
김광민 (99)	김수철 (95)	김준호 (81)	모과균 (84)	박철기 (97)	손창욱 (09)	오성호 (92)	이규환 (81)	이용우 (95)	이한목 (80)	정성학 (92)	조태현 (75)	하석원 (96)	황호준 (98)
김광섭 (95)	김수환 (82)	김지연 (01)	모성원 (97)	박철수 (83)	손현석 (92)	오승혁 (93)	이기국 (90)	이우중 (97)	이혁수 (83)	정수현 (98)	조현석 (98)	하승호 (04)	

대학원/MBA동문													
강경호 (99)	김대근 (02)	김영대 (70)	명장호 (99)	박형순 (00)	유성태 (99)	이윤재 (06)	이홍근 (76)	조성룡 (95)	한정섭 (95)	김도영 (G MBA '06)	손헌배 (SNUMBA'09)		
강주래 (98)	김봉경 (92)	김재윤 (92)	박동규 (99)	송혁준 (90)	이경중 (01)	이정목 (93)	정문기 (81)	조성연 (97)	홍진오 (00)	남상욱 (SNUMBA'08)	위건 (SNUMBA'08)		
권혁진 (89)	김상미 (00)	나경원 (99)	박민수 (01)	신현주 (05)	이권훈 (84)	이정훈 (05)	정홍일 (05)	천은영 (박사 '07)	황필주 (83)	남혜진 (SNUMBA'09)	이진 (SNUMBA'10)		
김광윤 (73)	김성현 (99)	류환열 (86)	박진하 (04)	안병주 (07)	이기학 (87)	이진영 (82)	조경훈 (92)	최원호 (98)	계명하 (SNUMBA'09)	배기표 (SNUMBA'09)	장승희 (EMBA'09)		

경영자과정동문									
이광열 (AAP 171)	김종광 (AMP 457)	박유덕 (AMP 677)	신성우 (AMP 327)	윤영호 (AMP 117)	이정빈 (AMP 687)	차문현 (AMP 677)	박성훈 (CFO 017)	이찬국 (CFO 027)	이필문 (GIB 037)
김선애 (ABP 267)	김종업 (AMP 287)	박윤택 (AMP 647)	신인수 (AMP 677)	은민수 (AMP 677)	이종태 (AMP 507)	최진식 (AMP 537)	사재훈 (CFO 077)	임경섭 (CFO 037)	고성수 (NSAMP 017)
강재철 (AMP 677)	김주한 (AMP 507)	박정석 (AMP 687)	안병제 (AMP 597)	이기천 (AMP 717)	이찬복 (AMP 677)	최효석 (AMP 677)	송현중 (CFO 027)	정혁주 (CFO 127)	고기한 (SCP 027)
고재방 (AMP 657)	남정현 (AMP 207)	박준형 (AMP 027)	안윤수 (AMP 457)	이병재 (AMP 197)	장산규 (AMP 647)	한규범 (AMP 427)	신동호 (CFO 027)	정종민 (CFO 047)	김광덕 (SCP 027)
구종태 (AMP 457)	노기호 (AMP 507)	박현섭 (AMP 667)	안창엽 (AMP 687)	이봉훈 (AMP 407)	정석현 (AMP 447)	황복현 (AMP 457)	심재복 (CFO 127)	정철모 (CFO 037)	성광웅 (SCP 027)
권기술 (AMP 097)	류덕희 (AMP 297)	성시철 (AMP 677)	유근영 (AMP 647)	이봉훈 (AMP 407)	정재호 (AMP 657)	강근호 (CFO 047)	안철홍 (CFO 067)	조효승 (CFO 117)	신재열 (SCP 027)
권오영 (AMP 647)	박병렬 (AMP 677)	손경식 (AMP 237)	유성규 (AMP 447)	이세업 (AMP 527)	조석재 (AMP 627)	강장학 (CFO 127)	옥경석 (CFO 047)	최명자 (CFO 127)	심경만 (SCP 027)
금창대 (AMP 387)	박성희 (AMP 547)	송언기 (AMP 287)	유원찬 (AMP 677)	이원영 (AMP 067)	조성환 (AMP 487)	김중엽 (CFO 067)	이동신 (CFO 107)	최태은 (CFO 097)	최성락 (SCP 027)
김교준 (AMP 677)	박세훈 (AMP 677)	송진수 (AMP 677)	유창원 (AMP 677)	이정원 (AMP 647)	조승현 (AMP 667)	류철한 (CFO 127)	이상래 (CFO 077)	홍지숙 (CFO 127)	
김인규 (AMP 067)	박영관 (AMP 297)	송진철 (AMP 527)	육근열 (AMP 647)	이재우 (AMP 677)	조희정 (AMP 677)	박경진 (CFO 127)	이수연 (CFO 087)	김종성 (DMP 027)	

기업, 단체													
경영대학직원 일동	AAP 11기일동	AMP 74기일동	CFO 12기일동	직원경영능력향상과정1기교육생일동	미셀	H&S Corporation	PSK(주)	고상희	김영운	신택택	이동하	최진호	
덕송회	AAP 12기일동	AMP 75기일동	CFO 13기일동	직원경영능력향상과정2기교육생일동	비티앤아이여행사	SK네트웍스(주)	(주)하나은행	권순철	김지형	유병록	이성로		
동문경영포럼2기	AAP 13기일동	AMP 76기일동	CFO 14기일동	89A 타조알상조회	삼성SDS	SK이노베이션(주)	하남산업(주)	권태석	민홍기	유준영	조현재		
상대동창회	AMP 28기일동	AMP 77기일동	CFO 15기일동	(주)골드윈코리아	삼성전자(주)	SK텔레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기준원	김경숙	박영범	이강숙	차동연		
서울대학교경영대학원동창회	AMP 61기일동	AMP 라이온스클럽	CFO 16기일동	(주)메모커머스	삼성투자신탁운용(주)	LG디스플레이(주)	한국공항공사	김승업	박정열	이도흙	최윤규		
서울상대동문농상회	AMP 62기일동	AMP 로타리클럽	CFO 17기일동	농협	(주)삼익악기	엘티에스코리아(주)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주)						
서울상대향상장학회	AMP 63기일동	CFO 1기일동	CFO 18기일동	(주)다이스아성산업	삼일회계법인	오성엘에스티(주)	(주)한일	경영대학 교수 및 교직원					
AAP 1기일동	AMP 64기일동	CFO 2기일동	CFO 19기일동	대성한국캠브리지필터(주)	삼정케이피엘지(주)	(주)와이비엠시사	(주)한일엔파워	강성준	김재일	안종호	임종원	최미혜	
AAP 2기일동	AMP 65기일동	CFO 3기일동	CFO 20기일동	대우증권	생명보험협회	(주)와이비엠시사	한화석유화학(주)	고봉찬	김진교	안태식	장정주	최종학	
AAP 3기일동	AMP 66기일동	CFO 4기일동	EMBA 1기	대전교고	신라교역(주)	우리투자증권	현대엘리베이터	곽성현	남익현	유병준	전진록	최진남	
AAP 4기일동	AMP 67기일동	CFO 5기일동	EMBA 2기	(주)대한항공	(주)아모레퍼시픽	우리건설	현대자동차(주)	곽수근	노상규	유희봉	정운오	최충림	
AAP 5기일동	AMP 68기일동	CFO 6기일동	EMBA 3기	동부문화재단	아이엠엔비스트먼트(주)	(주)유한양행	현대증권	김병도	박남규	윤계섭	조동성	최해영	
AAP 6기일동	AMP 69기일동	CFO 7기일동	EMBA 4기	(주)중앙강철	아이엠엔프라이빗에쿼티(주)	증권금융연구소		김상훈	박원우	윤석화	조성곤	황이석	
AAP 7기일동	AMP 70기일동	CFO 8기일동	G MBA Finance Forum	디엔씨엔지니어링(주)	아주베스틸(주)	(주)KT		김성수	박희준	이경목	조성욱		
AAP 8기일동	AMP 71기일동	CFO 9기일동	바이오회고경영자과정 제8기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안전회계법인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김수욱	백복현	이신이	조재호		
AAP 9기일동	AMP 72기일동	CFO 10기일동	바이오회고경영자과정 제9기	롯데쇼핑(주)	엔스트앤영어드바이저(주)	트러스트자산운용(주)		김영희	송재용	이유재	채준		
AAP 10기일동	AMP 73기일동	CFO 11기일동	자연친화경영과정 제1기	(주)리브로	(주)에스디케이	트리코인베스트먼트(주)		김익현	신재용	이창우	최도성		

그외																				
강상호	김경민	김명중	김용	김준범	김혜진	노장욱	박원	변중석	손인석	신해성	옥정오	이기홍	이승아	이재덕	이호인	장철희	전재호	정혁진	최재혁	황규태
강성신	김경준	김미진	김용하	김준형	김홍식	류연택	박유상	복정수	송학섭	안윤기	유옥동	이달근	이승열	이정미	이희진	장학성	전진우	조병진	최준걸	황민상
강진화	김경훈	김민석	김윤섭	김지용	나정인	류우석	박주홍	서미영	송영록	안진오	유대준	이대우	이시은	이주수	임도연	장호진	정금희	조재민	최지원	황성필
고영준	김광수	김보미	김의형	김진	남경우	문소정	박진우	서철원	송재승	안태호	유형관	이동훈	이영수	이주안	임동준	장홍	정병수	주소연	최진영	황세미
고재훈	김광우	김병수	김인영	김진호	남상현	민준기	박형민	서태식	송진혁	양범석	유환성	이상효	이우용	이준용	임방진	장홍석	정병수	주순애	최창호	황영기
고정혁	김근호	김상진	김재홍	김철기	남형권	박상철	박희정	서형준	신경화	양우정	윤용순	이석우	이유비	이창민	임승철	장환지	정상기	지운용	허운세	
공세혁	김도윤	김선정	김정배	김치열	노리브가	박소연	배성수	서은정	신문철	양현섭	윤현목	이선규	이윤기	이철	장동우	전광우	정성욱	차호수	현종윤	
곽태희	김도현	김수진	김종석	김치혁	노영근	박소영	배영석	성지숙	신세욱	오용진	이권희	이수정	이의식	이종민	장인수	전영완	정수철	최규환	홍동희	
길호문	김동찬	김아람	김준모	김현신	노일석	박우성	백성득	손병구	신영직	오해균	이규호	이승근	이인규	이한규	장진호	전우용	정지은	최영진	홍윤기	